

觀光釜山

Busan Tourism News

Vol. 14
2012. August

국립해양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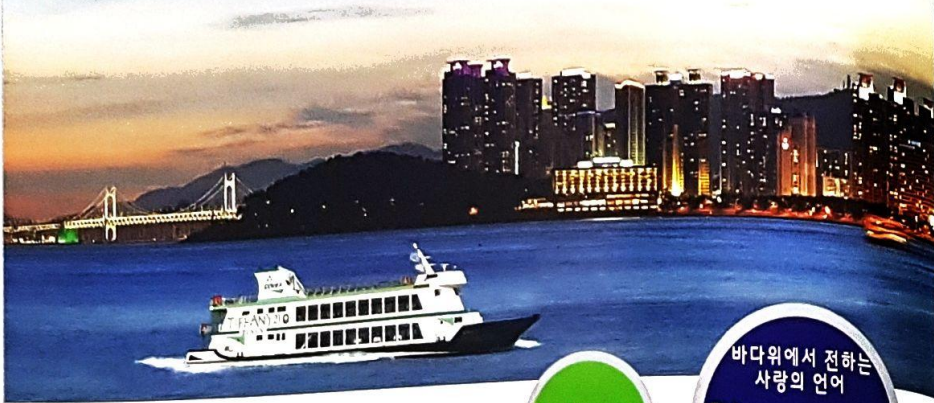
국내 최초의 종합 해양박물관인 국립해양박물관
해양박물관 외관은 바다의 물방울을 형상화한 역삼각형 모양으로
박물관 2~4층 상설전시관에는 해양 역사와 과학, 산업 등 다양한
유물과 전시물 등 1만여점이 선보인다



釜山廣域市觀光協會
BUSAN TOURISM ASSOCIATION
<http://www.bta.or.kr>

바다를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즐거움!

보물처럼 바다 곳곳에 숨겨진 진정한 바다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티파니21 선상에서 직접 바다를 느끼는 것입니다. 가족, 연인과 함께 아름다운 해양도시 부산의 진정한 클라이막스를 누리보세요!



Cookies tour
15:30~17:00

바다 위에서 전하는 사랑의 언어
Dinner tour
19:00~21:00

Lunch tour
12:00~14:00

Night tour
22:00~00:00

선상파티크루즈 TIFFANY 21 BUSAN

예약문의 **1577-7721** 전문상담팀 연결
743-2500

COURSE 주간 : 동백섬(누리마루) - 해운대 - 오륙도 - 이기대 - 광안대교 - 동백섬
 야간 : 동백섬(누리마루) - 해운대 - 광안대교 - 동백섬



바다위의 풍경높은 여유
 최고급 요리와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풍경높은 휴식과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차별화된 세미나&연회
 기업체 세미나, 워크샵, 결혼식, 회갑연 등 풍경높은 행사를 약속드립니다.



영화같은 감동적인 이벤트
 선상파티, 세팅이, 달맞이, 불꽃놀이 등 잊지 못할 감동적인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부산의 상경을 모두 즐길 수 있는

동백호
1688-3353

30년 전통의 부산대표 유람선
 오륙도 왕복 코스, 광안대교 야경 코스



부산8경을 한번에 누릴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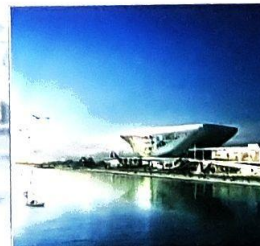
카멜리아
1688-0012

부산 유일의 편도 유람선
 해운대 - 부산대교 교통수단 가능



발행·편집인 이근후
 편집위원 손해식, 이광규, 김중규, 이해원, 김복오
 편집국장 박성하
 취재기자 이효영 (김대현, 이민지 객원기자)
 발행일 2012년 8월 13일
 등록일 2010년 9월 27일
 등록번호 부산동라 00009
 발행처 부산광역시 관광협회 _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569-2
 TEL. (051)463-3111, 463-3080 FAX. (051)463-0004
 편집실 부산사 동광동4가 18-8번지 2층
 TEL. (051)469-3563 FAX. (051)466-8062
 E-mail. bljbusan@hanmail.net
 편집·디자인 보문디자인 TEL. (051)469-3563
 http://www.bamoon.kr

- 04 제14회 부산국제관광전 개최
- 06 특집 - 제2회 돈황행 실�크로드 국제관광전
- 10 부산-중국 관광설명회 개최
- 11 중국 하이난 국제관광심 관광설명회
- 12 마이스산업, 세계적 국제회의 도시로 도약
- 13 벅스코 오디토리움, 부산 새 랜드마크
- 14 부산타워 120m층대라 변신
- 15 부산문화 새 르네상스 창조 '부산스토리텔링협의회' 출범
- 16 부산 찾는 외국인 관광객 급증
- 17 관광뉴스 - 동부산관광단지
- 18 부산 해수욕장이 달라졌다
- 19 부산의 주말특수 프로그램
- 21 18차 국제관광학술발표대회
- 22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 시민참여형으로 추진
- 23 부산시 동백섬~이기대 해상케이블카 등 본격추진
- 24 일탈 - 포구
- 26 도시 숲 늘려 푸르게... '그린 부산' 올해 47억 투자
- 28 기장 대변향, 공원·휴식공간 갖춘 '관광명소'로 탈바꿈
- 29 부산의 전통시장
- 30 현대서비스 총칭
- 33 갈맷길 관광 정보
- 34 기획 인터뷰 - 호텔리어 전창현
- 35 호텔가 소식
- 36 관광칼럼 / 외래관광객 1000만시대의 부산관광산업
- 38 관광칼럼 / 부산국제관광전 고교생관광서비스 경진대회
- 40 인물포커스 / 임재생 은산해운항공사 대표이사



표지 _ 국립해양박물관

부산! 관광에 빠지다. 부산국제관광전

제15회 부산국제관광전 ... 9월 7일~10일까지 부산 BEXCO 개최

국내 해양관광의 중심지인 부산에서 국내·외 관광객들의 축제를 제15회 부산국제관광전(BITF2011)이 2012년 9월 7일(금)~10일(월)까지 4일간 벡스코 1홀에서 열린다. 부산광역시 주최하며 부산광역시관광협회, (주)코트파가 공동주관하는 부산국제관광전은 1998년 개최 이래 매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고, 서울(인천) 다음으로 해외에서 국내로의 접근성이 뛰어난 부산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그 인지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번 관광전은 대형여행사들이 참가해 참관객을 대상으로 여행상담 뿐 아니라 가을 및 겨울을 겨냥한 해외 및 국내 여행상품을 관광전 기간 중에 특별한 가격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회의 주제 및 구성

- 국내홍보관: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 국내 우수 관광지 및 명소를 소개함
- 해외홍보관: 해외 유명 관광지 및 이국적 문화를 보고 느끼고 즐김
- 여행상담관: 국내 유명 여행사와 여행상품 상담과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
- 관광지식정보교류관: 미래의 관광 꿈나무들이 알차게 배우고 교류하게 함
- 전통문화체험관: 다양하고 특별한 전통문화를 보고 체험함
- 의료관광체험관: 우수한 부산의 의료관광을 보고 체험함
- 세계음식페스티벌관: 10개국의 이국적 음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한 곳에서 즐김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입장료는 일반 2,000원, 학생 1,000원이며 단체는 20인 이상 50% 할인이다. 부산국제관광전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무료초대권을 다운로드 받아 지참하고 전시장을 방문하면 무료입장도 가능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산국제관광전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이 21세기 동북아시아 국제관광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선 부산국제관광전이 국제시장에서 확고한 인지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부산국제관광전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전시회로 올라설 경우, 보다 경쟁우위에서 마케팅 활동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전시주관사뿐 아니라 지역관광업체들이 합심해서 노력해야 한다.

부산국제관광전 사무국 051-740-4130~3
부산광역시관광협회 051-463-3111



참가규정 및 계약조건

제15회 부산국제관광전

- 제1조 용어의 정의
"전시회" 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 제출과 함께 참가비를 납부한 회사, 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
"전시회" 라 함은 "제15회 부산국제관광전(The 15th Busan International Travel Fair)" 을 말한다.
"주최자" 라 함은 "부산광역시" 를 말하고, "주관자" 라 함은 "부산광역시관광협회" 와 "(주)코트파" 를 말한다.
- 제2조 전시 부스면적 할당
주관자는 참가비 납입순서, 참가규모, 전년도 참가실적 및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전시부스 내 각 업체에의 위치를 결정한다. 주관자는 전시회 준비기간 이전까지만은 언제든지 전시회에게 할당된 전시 부스면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관자의 재량이며, 전시회는 위 변경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3조 계약, 신청 및 참가비 납부절차
참가신청서 제출을 주관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로부터 7일 이내에 참가비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참가신청서 사입자등록증 사본 및 참가비 입금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부대시설 사용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부대시설 신청요금 입금증 및 신청서를 별도로 2012년 7월 20일까지 제출한다.
(계좌번호: 796601-04-084878, 입금은행: 국민은행, 예금주: (주)코트파)
- 제4조 기본 참가비
참가비라 함은 부스(면적) 임대비이며, 기본참가비는 부가기치세를 포함하여 부스당 기본 조립식 2,200,000원(3Mx3M), 독립식 1,870,000원(3Mx3M)으로 한다.
- 제5조 참가비 내역
기본 참가비 중에는 전시장소 및 외곽 경비, 뽕로청소, 홍보자료리플렛, 디렉토리제공 비용이 포함된다.
- 제6조 설치 및 철거
설치 및 철거는 주최/주관자가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전시회는 자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 등에 대하여 주최/주관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 제7조 주관자에 대한 정보제공
전시회는 주관자가 부스 내 설치 및 홍보활동이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물 및 전시공간에 관한 자료는 물론 "제15회 부산국제관광전"의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주관자에 제공하여야 한다.
- 제8조 보험, 보안 및 안전
전시회는 전시기간은 물론 설치 및 철거기간 동안 설비, 전시물의 도난, 파손, 분실 등에 대비하여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주최/주관자는 전시회 및 참가자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시장 경비 등 적절한 경계조치를 제공하지만, 전시회의 모든 물품에 관한 금주적인 책임은 전시회 스스로에게 있으며, 도난, 파손,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전시회 스스로가 부담한다.
- 제9조 전시 및 홍보활동
전시회는 전시 계획안 상에 명시한 전시물을 전시하고, 주관자의 별도 허가 없이 전시장내 판매행위는 일체 금지한다. 기타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전시장의 전시여부에는 사전에 주최/주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10조 참가해지
전시회가 신청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관자는 일방적으로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11조 전시회 취소, 변경
주최자가 국가 위기 상황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취소 또는 취소하는 경우 참가신청과 관련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12조 보증규정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증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회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전시회는 주최/주관자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3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회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 및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해 내려지는 판결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신청 및 참가비 납부안내

참가신청	2012. 7. 20까지 [우편, 팩스 송부]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참가신청	2012. 7. 20까지 [홈페이지(www.kotia.co.kr / www.bitf.co.kr)] - 온라인 등록 후 사업자등록증 팩스 송부
참가비 납부	참가신청 후 1주일 이내 - 참가비 납부후 입금증 사본은 사무국으로 팩스 송부 은행납부 예금주 (주)코트파 / 계좌번호 : 국민은행 796601-04-084878
참가문의	(주)코트파 TEL. 02-757-6161 FAX. 02-757-6089
전시부스 위치배정	부스 위치 배정은 지역별, 업종별 성격, 신청순위, 부스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 사무국에서 최종 통보합니다. 부스지정에 대한 모든 권리는 당 사무국에 있습니다.

* 참가신청 절차

신청서 제출 및 접수	참가비납부	참가업체 배부일 발송	신청사등록 및 공간신청서 발송	전시회 계약
2012. 7. 20	신청서 접수 후 일주일 이내	2012. 7. 23	2012. 8. 10	2012. 9. 7

부산시 관광협회

중국 국가 여유국, 감숙성(甘肅省)인민 정부초청으로 제2회 동향행 실크로드 국제관광전'에 가다.



제2차 동향행 실크로드 국제여행절 초대연회에 한국을 비롯한 11개 나라 900명이 감숙성국제호텔에서 개최했다.

중국 국가 여유국, 감숙성(甘肅省)인민정부는 서로의 문화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키자는 차원에서 지난 7월 29일~8월 4일까지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11개국 900여 명의 여행관련 인사를 초청 '제2차 동향(敦煌)행 실크로드 국제관광전'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 초청받은 부산시 관광협회(회장 이근후)회장단 일행은 '국제 여행절 초대 연회'에 참석할 겸 감숙 실크로드 구간 1,665km, 상해-서안-동향-란주(蘭州)를 여행하기 위해 김해공항에서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를 탔다.

실크로드(Silk Road)란?

비단길이라고도 한다. 고대에 비단무역의 계기로 하여 중국과 서역 각국의 정치·경제·문화를 이어준 육해 교통로의 총칭을 뜻한다.

독일의 지리학자 리히트호펜이 이 말을 처음 사용했다. 총길이 6,400km에 달하는 실크로드는 중국 중원(中原) 지방에서 시작하여 허시후이림(河西回廊)을 가로질러 타클라마칸 사막의 남북변을 따라 파미르 고원, 중앙 아시아 초원, 이란 고원을 지나 지중해 동안과 북안에 이른다.

이것을 지형적 특성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그중 동쪽 부분은 중원에서 둔황(敦煌)까지 이르는 구간으로, 역대에 장안(長安: 지금의 서안) 또는 뤼양(洛陽)을 기점으로 했고, 허시후이림이 중요한 길목이었다. 중앙 부분은 동향 서쪽에서 파미르 고원 동쪽까지이며, 이 길은 타클라마칸 사막에 가로막혀 사막 남쪽은 산맥(崑崙山脈) 북쪽과 사막 북쪽엔 산맥(天山山脈) 남쪽으로 가는 두 길로 나뉜다. 서쪽 부분도 중앙 부분과 마찬가지로 남·북의 두 길래가 있어서 남로는 파미르 고원의 쿠시쿠르간에서 서쪽으로 쿠산 왕국에 이르고, 여기서부터는 뱃길로 천축(天竺: 인도의 옛 이름)에 들어갈 수 있다. 인더스 강을 따라 내려가 아라비아 해와 홍해로 들어가서 지중해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까지 이른다. 북로는 강계(康居: 漢魏시대 중앙 아시아의 키르키스 평원을 중심

으로 활동했던 투르크계 유목민족국가)에서 서쪽으로 이란을 지나 곧장 지중해와 로마로 이어지는 길이다. 이 길은 거의 수천 리로 이어져 지금의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등 10여 개 국가를 거쳐간다. 이 세 부분 가운데 동쪽 부분은 역사적으로 변화가 크지 않았지만 중앙과 서쪽 부분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상해

세계에서 가장 큰 항구이며 중국의 주요산업, 상업중심도시 상해, 아파트와 고층 주상복합 빌딩 구사가 곳곳에서 건축되고 있어 옛날 모습은 전혀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정돈되고 있음에 피부로 느낀다.

1949년 상하이에 인민해방군에 의해 점령되기 전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도시의 경제는 비효율적인 대규모 기계공업의 이상 증식, 인플레이션의 만연, 산업재간을 위한 전전적 계획의 결여 등으로 인한 대혼란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 1949년 이후로 내지의 발전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상하이의 발전은 잠시 늦어졌다. 특히 소련과 긴밀한 협조관계가 유지되던 1960년까지의 기간에 발전이 둔화되었다. 1960년 이후 중·소 관계가 냉각되면서 상하이는 중국에서 가장 숙련된 노동력을 가진 도시로서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으뜸가는 과학 기술 연구 중심지로서의 핵심적 지위를 되찾고 있다. 인구는 약 2천여만 명이다.

자! 떠나자

남쪽 꼬트머리 수로가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서안(西安)에서부터 감숙성~란주~고비사막으로 이어지는 실크로드 여행길 체험은 축복 받은 자 만의 몫이다.

동향에서부터 버스로 여행하는 동안 끝없이 펼쳐진 모래지평선이, 그리고 2,000여km가 넘는 기린 산맥정상 만년설이 하얗게 눈부시다. 감숙고속도로 따라 가다보면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 띄엄띄엄 보이는 오아시스 주위에 녹화 사업이 한창이고 또 수천개의 태양광 발전기구와 10,000여개가 넘는 세계 최대 풍력 발전기는 의장대가 하얀웃을 입고 일열로 서서 충을 돌리는 것처럼 프로펠러가 돌아간다. 한참 달리다보니 오아시스가 나타나 대추, 포도, 옥수수 등 각종 농작물이 뜨거운 여름 햇살아래 익어간다. 동향에서 란주까지 가면서 양관유적, 명사산, 세계 문화유산인 막고굴, 명나라 만리장성 가옥관을 관광한 후 국제관광제에 참석한다. 이어 장액 대불사, 습지여름 관광문화 축제 개막식에 참석하고 난뒤 6시간 넘게 버스에 타고 마지막 목적지인 란주에 도착, 황하강물에 빠진다.



감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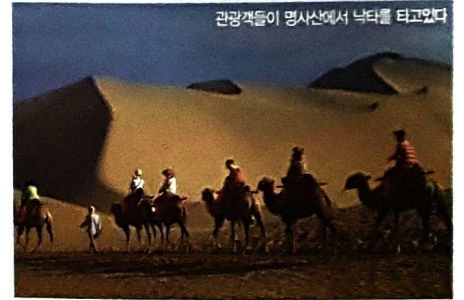
간쑤 성은 중국 서부, 황하 상류에 위치하며, 지역이 드넓다. 동쪽으로는 산시(陝西), 남쪽으로는 쓰촨(四川), 서쪽으로는 칭하이(靑海), 신장(新疆), 북쪽으로는 네이멍구(內蒙古), 닝샤(寧夏)와 경계를 접하고 있으며, 12개주와 2개의 자치주로 이루어져 있다. 면적은 대한민국 남북한 합친 것 보다 2배가 크며 인구는 약 2천 600만 명이며 한족이 91% 차지한다.

이 지역은 고대 문화의 발전이 비교적 이른 지역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이는 최근 이 지역에서 발견된 구석기 시대 중8만기의 석기, 골기, 동물의 화석 그리고 인류가 불을 이용했던 흔적들과 7,000여 년 전의 신석기 시대의 유적들 8000여 점 등이 증명하고 있다. 춘추전국시대에 여러 이민족들이 살았으며 허시(河西) 지방에 흉노, 월지, 오손 등의 민족들이 살았다.

진나라 때에는 웨이허(渭河)상류와 징해(涇河)유역 등지에서 온난 다습한 기후와 비옥한 황토 등의 자연 환경을 이용해 농업이 발전하였다. 한(漢) 제국의 절정기인 한 무제(武帝) 시대 이후 동서교역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이 지역은 실크로드의 간선지대로 부각된다. 삼국의 대립이후 전개된 분열시대에는 관동유역이 쇠퇴하는 대신 변경무역이 왕성하게 전개되었다.

양관

감숙성 동향현서서 70km 고통탄(古董灘)에 위치, 틈은 일찍 대량의 한대문물통합축, 오주전, 석마, 도자기 조각이 표출되어 이름 날리게 되었다. 고대중의 유물



교통의 인후로서 실크로드 남쪽, 팔해 경과해야 하는 관은이다. 당대사인 왕유의 '권군경진배배주, 서출양민무고안' 시가 전해지고 있다. 양관 북쪽신동상야에는 한 대의 봉화대가 눈에 띈다. 동향 인구 15만명이며 박물관에는 연간 관광객이 70-80만명이 찾는 곳이다. 출토된 유물, 글동품 벽화가 유망하다. 1933년부터 2003년까지 당시의 상을 재현한다.

명사산

동향에 있는 또 하나의 명물은 고운 모래로 이루어진 명사산(鳴沙山)이다. 이 명사산은 동향의 남쪽으로 5km 떨어진 곳에 조용하게 숨어있는 모래산으로 불멸의 한 모래와 돌이 퇴적되어 형성된 산이라고 한다. 신사산(神沙山), 사지산(沙地山)이라고도 하는데, 심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모래산은 거대한 소리를 내며, 가벼운 바람이 불어도 마치 관현악 연주하는 듯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러한 산의 특징으로 백소리(白鳴), 낮소리(沙鳴)를 따서 명사산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산 정상에 올라가 미끄러지듯 내려오다 보면 발 아래에서 나는 모래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남북 20km, 동서가 약 40km에 이르는 거대한 모래산은 이름 그대로 모래결이 희고 가는 정도가 인기 어려울 정도다. 특히 명사산 위로 올라가 바라보는 저녁 일몰의 풍경은 천하의 절경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답다. 또 이때는 아름다운 모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인체와 모래의 마찰로 인하여 일어나는 불꽃도 볼 수 있다.

부산-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래주시 관광 설명회 개최

이근후 부산 관광협회장 담효금 래주시 여유국장이 관광활성화시책에 대한 협약에 서명후 들어보이고 있다.



중국 산둥성 칭다오(靑島)시 여유국장(任麗波)부국장 일행, 산둥성 래주(萊州)시 담효금(譚曉駿) 여유국 국장 일행, 그리고 부산시 관광협회 이근후 회장을 비롯한 여행업체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사내 코모도 호텔에서 지난 1일 관광설명회를 가졌다. 왕린파 부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저희는 부산 친구들을 만나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져 있는 칭도시는 경치가 매우 아름다우며 중국 최우수 여행도시, 역사 문화도시, 환경보호 모범도시, 여행레저 명승지, 그리고 국가가 확정한 국제회의 도시입니다. 또 풍부한 여행자원 역사와 문화 도시이며 칭도국제액주 축제, 전자가전 박람회 등이 열립니다. 여러분 칭도는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초청" 한다고 말했다.

칭다오(靑島)

중국 산둥 성(山東省) 동부에 있는 항구도시 칭다오는 중국 북부에서 제일 가는 천연항 가운데 하나로, 산둥 반도 남쪽 해안에 자오저우만(膠州灣) 등쪽 어귀에 있다.

칭다오는 본래 죽목현(即魯縣)에 속한 보잘것없는 어촌이었으나, 청대(1644-1911)에 칭다오(靑島)라는 세관이 세워지면서 대규모 정크 무역이 발전했다. 1880년대 북양함대(北洋艦隊)를 창설하면서 중국 정부는 칭다오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곳에 소규모 해군 보급기지과 요새를 설치했다. 1899년 자유항으로 선포되었고, 근대적 항구시설도 들어섰다. 또한 지난(濟南)까지 이어지는 철도도 놓였다. 칭다오는 유럽풍의 근대적 도시로 설계되었으며, 여러 공장들도 들어섰다. 멀리 남쪽으로 장수성(江蘇省)에 있는 새 항구 련원항(連雲港)까지의 해안무역을 관장하기 위해, 제국해관(帝國海關) 지부가 칭다오에 세워졌다. 1941년까지 칭다오에는 근대식 면방직공장, 기차차·열차 제작소 및 수리공장, 기계수선소가 세워졌으며, 고무·성냥·화학약품·염료 등을 제조하는 공장도 들어섰다. 양조공장에서는 중국에서 매우 유명한 맥주가 생산된다. 1949년 이래 칭다오는 주요 중공업기지로 발전했다. 1970년대까지는 과거에 많이 제조되었던 직물이 기계공업과 함께 경쟁적으로 발달했다. 1950년대말 중국에서 으뜸 가는 주요철강공장이 이 지역에 세워졌다. 칭다오는 동서를 잇는



칭다오 노산(靑島 嶺山)

도 호텔에서 지난 1일 관광설명회를 가졌다. 왕린파 부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저희는 부산 친구들을 만나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져 있는 칭도시는 경치가 매우 아름다우며 중국 최우수 여행도시, 역사 문화도시, 환경보호 모범도시, 여행레저 명승지, 그리고 국가가 확정한 국제회의 도시입니다. 또 풍부한 여행자원 역사와 문화 도시이며 칭도국제액주 축제, 전자가전 박람회 등이 열립니다. 여러분 칭도는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초청"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근후 협회장은 "우리는 지난 2000년 칭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후 10여년이 넘게 두 도시간 변함없는 우의증진과 활발한 관광교류사업을 해 왔으며 양국간 연간 관광객이 700만명을 넘어 머지않아 1000만명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보다 많은 관광객이 부산과 칭도지역을 방문, 두 도시간 국제 교류를 돈독히 이어가길 원한다"고 말했다.

철도 노선의 증착역으로, 엔타이항(煙臺港)과 철도로 이어져 있다. 큰 어항이기도 하며 중요한 농업 중심지이기도 한 칭다오에는 산둥대학교, 칭다오기술연구소, 칭다오공과대학, 해양연구소 및 그밖의 고등교육기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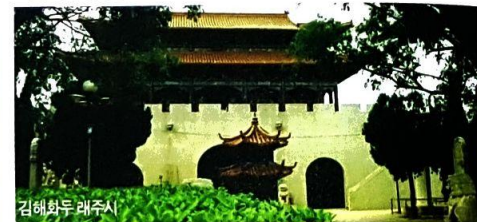
래주시(萊州)

산둥성 래주시는 산둥반도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래주만에 인접해 있다. 연태, 칭도, 위방 3개 도시의 가운데 위치하고, 총면적은 1878평방킬로미터이며, 17개 진(鎭), 3개 성(省)급 개발구권 광 리조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인구는 9만 명이다. 래주는 중국 경제 기본 경쟁력 100대 군이며, 국가 위생청결 도시, 국가 환경보호 모범 도시, 중국 장수의 고향, 중국 행복감이 가장 높은 도시, 중국 우수관광 도시이다.

래주는 108키로마다 해안선, 황금같은 모래, 푸른 물결, 소나무 숲이 둘러싸여 있으며 많은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다.

래주는 자원이 풍부하여 황금 매장량이 전국에서 1위 자리를 잡고 있다. 해산물이 3000종류가 있으며, 꽃게, 보리새우, 대합 등 "10대 해산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래주는 산을 등지고 바다를 행하여 사계절 뚜렷하며 북방지역은 첫째로 장수의 고향이며 살기에 좋은 현대화 해안 원림화 도시다.

래주는 교통이 매우 편리하고 산둥반도 블루 경제 구역과 황하 삼각주 생태 경제 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래주항은 국가 일류 개방 항구 도시다.



김해화두 래주시

중국 하이난 국제관광섬 관광설명회

리귀량(李國梁)해남성 인민정부부시장, 주부산중국총영사관 관계관 등 참석



부산시 관광협회 류연국 수석부회장은

한중수교 20주년 및 여수엑스포 '해남의주'를 기념하고 한국관광시장에서 국제적인 관광섬 하이난섬의 관광자원을 알리기 위해 리귀량(李國梁) 해남성 인민정부부시장, 주부산중국총영사관 일행 15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7일 롯데호텔에서 관광설명회를 가졌다.

리귀량 부시장장은 인사말에서 "해남도는 중국 특유의 민속 문화가 살아 숨쉬는다. 해남성 정부는 연중 온화한 열대와 이열대 기후가 빚어내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살리기 위해 남부 해변일대를 관광지로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싼야 일대의 휴양 리조트는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한다. 해남도는 해변 뿐 아니라 내륙 열대 우림 사이에 계곡과 온천이 자리하고 있어 부산지역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서 부산시 관광협회 류연국 수석부회장은 "지난 20년의 세월이

하이난 남중국 해에서 가장 눈부신 진주이며 휴가 낙원인 하이난 섬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열대 명승지인 마이애미, 카리브해, 하와이, 발리, 몰디브와 함께 자국의 제일 아름다운 위도 북위 18도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세계에서 "오염되지 않은 보기 드문 땅이다. 찬란한 햇빛과 맑고 깨끗한 바다 물, 부드러운 백사장과 사시정찰 푸르른 초목, 그리고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신선한 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섬 전체 면적의 58% 이상 이 수림인 하이난은 그야말로 화려한 녹색 옷차림을 한것 같고 아름다운 열대 섬의 풍경과 독특한 민속은 더욱더 매력적이고 낭만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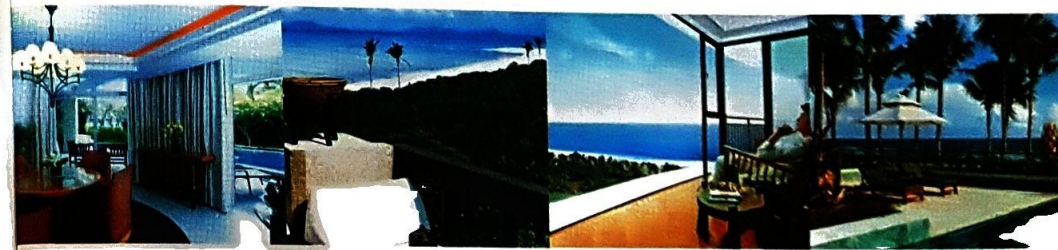
사면이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하이난도는 그 해안선 길이가 1528킬로미터 이고 해역은 210여만㎢ 이며 너무 그림자가 잘 어울린 아름다운 아자수림, 부드러운 백사장과 오색찬란한 바다길 세계들로 해안 리조트의 천국극원을 이루었다 아자수림 그들, 맑은 물과 하얀모래는 하이난이 호감을 느끼게 하는 자

호면서 한중, 양국은 경제, 문화, 관광,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교류가 눈부시게 발전해 왔으며 머지않아 상호 방문 관광객수는 1000만명 시대가 올 것이다. 오늘의 소중한 만남을 통해 해남성과 부산 양도시간 우호친선과 관광교류의 활성화가 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 고 말했다.



본이며 끝없이 수려한 푸른 열대 해안도 하이난의 여행산업을 발전시키는 기반이 되었다.

또 아름다운 황금 해안과 세계에서 유일하면서도 더욱더 진귀한 원숭이 보호림이 있으며 화산 경관이 있고 열대 식물 박물관도 있다. 그리고 '등방의 하와이'로 불리는 '천하제일만인' 아용만과 닷에는 구름과 조수를 구경하며 마음껏 파도를 즐기고, 발이면 절주있는 파도소리에 잠든 봉래산(蓬萊山) 건설에 신선이 거하고 있다는 온갖 같은 대동해가 있으며 복희두 공원 산봉우리에는 서있는 거대한 조각상은 마치 이족 사냥꾼총각과 사슴 처사의 아름다운 마음을 설레게 하는 사랑 이야기를 조용히 하고 있는것 같다. 그리고 국외 관광객들이 말하는 '북쪽에서는 만리장성을 구경하고, 남쪽에서는 천하해각을 구경한다'는 하늘과 바다의 신기한 경관과 거대한 비류들이 우뚝 솟아 있는 천애해각도 있다.



마이스산업,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 국제회의 도시로 도약

관광산업, 21세기 첨단경제를 주도할 고부가가치 핵심산업의 하나다. 최근 국가·도시 경쟁의 뚜렷한 화두 하나는 MICE산업 키우기, MICE산업, 기업회의(Meetings)·포상관광(Incentives)·컨벤션(Conventions)·전시(Exhibitions) 등 4개 분야를 합친 산업이다. 부가가치가 높고 관광수입이 많아 '물뚝 없는 황금산업', '지미스산업의 꽃'으로 통한다.

MICE산업을 선점한 도시(국가)는 싱가포르다. 국제회의 개최 1위다. 국제회의를 연 600~700건 유치, 수조 원을 벌어들이며, 2015년 목표는 10조원, 세계 국제회의 중 유입이 50% 이상, 다음 아시아미주지역 등이 시장을 분점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MICE산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신성장 동력산업의 하나로 지정했다. 그러나 국내 MICE산업의 국내총생산(GDP) 중 비중은 1% 미만이다. 전시·컨벤션 참가자 100명을 유치하면 중형 자동차 21대, 42인치 LCD TV 1천531대를 수출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한다. 부산은 최근 MICE산업에 대한 공을 들이며 '아시아 4대 국제회의 도시' 만연에 올랐다. 부산은 11년 전, 벅스코를 개관한 이래, 2009년 APEC 정상회의 같은 국제행사들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전시·컨벤션 도시의 영광을 키워 왔다. 최근 벅스코 제2전시장과 오디토리움을 개관했다. 국내 최대·최고 수준의 기만시설이다.

부산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 국제회의도시로 도약한다. 부산시는 지난달 13일을 '제1회 부산 전시컨벤션의 날'로 정하고 세계적 MICE 산업 권위자들을 초청,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 행사 주제는 '아시아의 미래, 부산의 미래, 신성장 동력 MICE 산업'. 문제는 분명하다. MICE산업의 특성상, 부산시와 정부, 유관기관, 학계, 기업의 융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 아래, 부산의 MICE 산업이 '세계최고' 수준으로 도약이 기대된다.

김대현 기자

UIA 통계, 세계 컨벤션도시 순위15위, 아시아 4위

부산이 국제 회의도시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며 급성장 컨벤션도시, 명문도시로 우뚝!

부산시는 UIA(국제협회연합) 주관의 '2011년 컨벤션도시 세계순위' 통계 결과 세계 183개국 1406개 도시 중 컨벤션도시 세계순위 15위, 아시아 4위를 차지했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부산은 '지난 10년간 세계에서 가장 놀란 만한 컨벤션 급성장 도시' 순위에서 3위를 차지해 신종 컨벤션 명문 도시로 우뚝 섰다.

UIA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기구로, 매년 세계국제회의도시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부산은 2011년 한 해 동안 ▷국제기구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참가자 50인 이상의 회의 ▷국내 단체 또는 국제기구의 국내 지부가 주최하는 회의 중, 참가국 5개국 이상, 외국인 참가자 비율 40% 이상, 회의기간이 2인 이상으로 전시회를 동반하거나 참가자 250명 이상인 국제회의를 개최한 결과 총 108건을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세계 순위는 전년(17위)에 비해 2단계 상승했으며 아시아 순위는 싱가포르 서울 도쿄에 이어 2년 연속 4위를 기록했다.

시는 이번 결과로 벅스코 전시장과 회의장을 비롯해 도로 교통안전속박, 관광 등 갖춰진 인프라와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비태 부산관광컨벤션부서 사무처장은 "컨벤션하기 가장 좋은 하드 인프라와 해양문화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 인프라의 접목이 부산컨벤션의 강점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벅스코와 영화의전당 등 인프라와 현재 조성 중인 해운대 관광리조트, 동부산관광단지 등을 연계한 MICE 복합단지 를 구축해 오는 2020년에는 세계 10대 국제회의 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벅스코 오디토리움, 부산 새 랜드마크로 4천석 규모 계단식 실내회의장 대형무대·스크린·통역부스 등 국제회의 최적화된 시설 갖춰

지난 1일 문을 연 새 전시장 '제2벅스코'와 계단식 회의장 '오디토리움'이 그 도약이다. 벅스코 확충시설의 백미는 뽀뽀뽀뽀뽀뽀뽀 4천2석 규모의 계단식 실내회의장 오디토리움이다. 가로 32m, 세로 17m의 대형무대와 스크린, 8개 동시동역 부스 등 국제회의 개최에 최적화된 시설을 갖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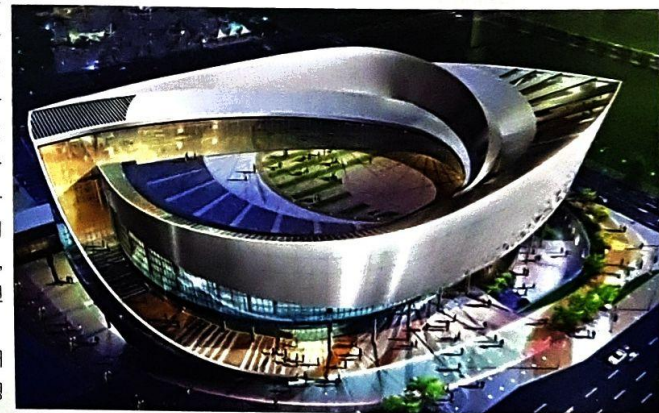
파도에 부서지는 물방울을 형상화한 오디토리움 전경. 오디토리움은 개관과 동시에 국제회의도시 부산의 대표공간이자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국제회의뿐 아니라 콘서트, 오페라 같은 다목적 공연장으로 변신이 가능하기 때문. '4천석의 부산 최대공연장', 벅스코 오디토리움이 개관하자마자 얻은 타이틀이다. 부산은 최첨단 국제회의장 겸 품격 있는 대형 문화공연장을 또 하나 갖게 된 것이다.

오디토리움의 객석 수는 고정석 2천64개, 이동석 1천588개로 모두 4천2석. 연면적 4천766㎡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다. 외관은 거친 파도를 헤치며 나아가는 배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파도에 부서지는 물방울을 응용한 감각적인 디자인을 자랑한다. 공연장은 중앙과 좌우 3면에 객석이 배치되는 형태다. 전체로도, 따로 나눠서도 공연이 가능하다.

무대와 객석의 거리는 불과 30m. 대형 공연장이면서 공연을 가장 실감나게, 손에 잡을 듯 들길 수 있다. 실내 회의와 공연 등 행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적인 미학이 돋보인다. 8개의 동시 통역부스, 분장실, 준비실, VIP라운지, 사무실을 비롯해 케이터링 주방 및 매표소 등 지원시설을 갖췄다.

위치나 부대시설 조건도 훌륭하다. 일단 도시철도역, 버스경유장과 바로 연결돼 있어 부산 어디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관람객들은 지하철 센터시티(벅스코)역에서 바로 연결되는 지하1층의 친한 경 선큰가든(지하도로에 꾸민 정원) 또는 벅스코알 버스경유장 바로 옆 1층 광장을 거쳐 건물로 들어갈 수 있다. 벅스코 주차장 3천300면에 오디토리움 자체 주차장 400면 등 주차공간도 충분하다.

오디토리움에서는 국내외 대형 회의나 대규모 기업회의, 각종 행사 등 다양한 마이스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이벤트·전시(포괄) 행사를 열 수 있다. 좌우측 좌석을 무대로 전환하면 3천석 공연장으로도 변신한다. 임시, 금융, 종교 분야에서 진행되는 각종 대규모 강연회도 수용할 수 있다. 벅스코 전시컨벤션팀에 따르면 오디토리움은 개관과 동시에 대중가수 콘서트, 오페라, 난버벌퍼포먼스, 기업 VIP고객초청 콘서트 등과 관련한 공연기획자들의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이미 올 하반기에만 18건의 행사를 예약한 상태. 소통과 감동이 함께하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개념의 복합문화공간. 오디토리움이 국제회의의 새 명소 겸 공연문화를 견인하는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빠르게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전시컨벤션 관계자는 "벅스코는 규모와 시설에서 한층 인프라가 탄탄해져 각종 대형 전시회, 국제회의를 쾌적한 환경에서 수준 높게 치를 수 있게 됐다"며 "부산시의 위상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김대현 기자

부산대표적 상징, 부산타워 120m 등대로 변신

오는 10월 등대전문가, 관광전문가, 시인 등이 참가.

등대포럼 개최 계획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 5일 정부 관보에 용두산공원의 '부산 타워'를 '관광 및 항행원조용 등대'로 고시했다. 부산의 대표적 상징 중 하나였던 '부산타워'가 등대로 변신, '관광 및 항행원조용'이란 일반 등대처럼 선박의 운항을 돕는 역할을 하면서 관광용으로도 쓰인다. '관광용 등대 지정은 '부산타워'가 최초'.

'부산타워 등대'는 전 세계 해도와 등대표에도 표시됐다. 부산타워는 매일 해가 진 뒤 오후 10시 40분까지 불을 밝혀 부산항 남항을 드나드는 선박들의 항해를 돕는 등대 역할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 부산타워 전망대 야외 옥탑에 40km 거리까지 불빛을 비추는 등대용 조명기를 설치, 용두산공원의 높이 69m를 합하면 해발 189m가 된다. 1973년 건립된 '부산타워'는 전망대에서 영도대교·부산항·자갈치시장·남항대교·오륙도 등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으로 부산을 대표하는 상징물이다.

'부산타워 등대'는 또 세계적 유명세를 치르는 첫 등대가 될 전망이다. '부산타워 등대'는 높이가 120m로 높이에 사우디아라비아 제다항의 등대(133m)에 이어 세계 2위다.

부산은 등대의 도시다. 이생진시인은 '나는 등대를 볼 수 없는 고독과 함께 바다를 건너야 하는 등대'라는 시집을 펴냈다. '고독'의 등대의 고독은 '고독'이 아니고 '내면 등대'에서 '고독'이다.

등대가 요즘 유행하는 '걷기, 시(詩), 그리고 낭송회 등과 어울려 '해양문화 콘텐츠'로 진화하고 있다. 바다 위 배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던 등대가 육지 위 주민들의 고단한 삶에도 빛을 비추는 셈이다.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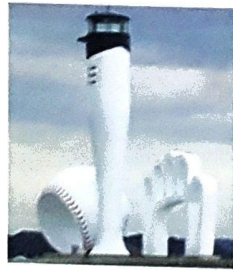
장군 연화리-칠암 사이 5-6km의 구간엔 멋진 등대들이 즐비하다. 윈드캡, 장승, 젓병, 야구... 등대는 한때 전국 최저 출산율에 허덕이던 부산의 염원을 담고 있고, 야구는 롯데자이언츠에 미치는 부산갈매기들의 열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 송도엔 거북이·무지개와 고래를 형상화한 등대가, 부산항 신항에는 차전놀이를 표현한 등대가 각각 서 있다. 해운대에는 연꽃 등대가 바다 위에 떠 있다. 부산해항청은 또 올해 중 기장군 일광면 칠암야항 북방파제 양쪽에 '일출·갈매기 등대'를 세울 계획이다. 일광면의 태양, 부산의 상징인 갈매기를 형상화한 이 등대는 오는 연말 완공 예정이다. 이 등대들은 모양만큼 색깔도 다양하다. 창백한 '하얀색' 일색이던 예전과 달리 빨강, 노랑, 파랑, 주황, 회색, 검정 등 총천연색으로 바뀌었다. 새로 조성될 '일출·갈매기 등대'는 LED 야간경관 조명이란 신기술도 장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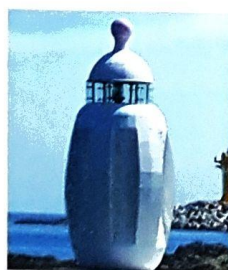
이런 등대의 외관적, 형태적 변화는 사회적, 문화적 변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 산하 부산관광컨텐츠사업부와 부산해항청이 지난 2009년 '등대 도시상징화사업 협약'을 맺은 뒤 등대 사진을 담은 캘린더와 엽서를 만들고 등대 모형 도자기·휴대폰 액정 클리너를 제작, 판매하고 있다. 또 '해양문화 콘텐츠, 등대의 활용 방안 세미나' 등을 열거나 등대 소재 시(詩)를 모은 시집(등대가 그리울 때, 오직, 불빛)을 냈다.

지난 2일에는 등대길 걷기 행사를 가졌고 오는 10월에는 등대 전문가, 관광 전문가, 시인 등이 참가하는 '등대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효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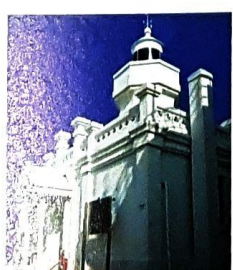
▲야구등대



▲젓병등대



▲오륙도등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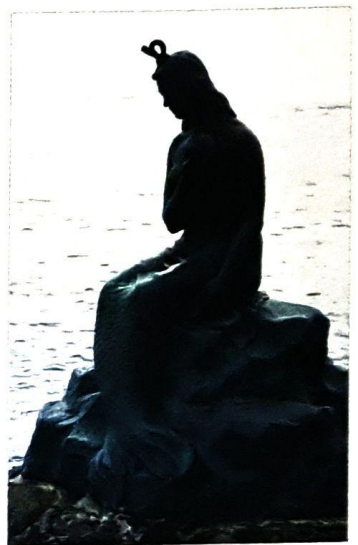
▲기덕도등대

부산문화 새 르네상스 창조 '부산스토리텔링협의회' 출범 역사·관광·명소·이야기... 지역대표 콘텐츠 육성

부산지역 사회가 해운대와 쇠지린 신생, 허황옥과 인어동상 이야기, 황령산 봉수대, 감천동 테크마을과 산복도로 등 부산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 관광명소, 이야기 등을 부산을 대표하는 콘텐츠로 만들기로 했다. 부산 이야기를 출판물과 영화, 캐릭터 등으로 다양하게 개발하고 이를 통해 부산문화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창조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부산은 문화와 예술 향기가 흐르고, 콘텐츠가 살아 숨쉬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사)부산스토리텔링협의회가 최근 국제신문 중강당에서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협의회에는 부산광역시와 부산시교육청, 국제신문, 부산문화재단, BIFF조직위원회, 부산상공회의소, 부산대·동서대, 부산발전연구원, 부산작가회의, 부산독립영화협회, 신대양건설, 천호식품 등 지역 42개 주요 기관·단체·언론·학계·기업·연구소 등이 대거 참여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산·학·관·연 네트워크를 활용, 부산이 지닌 다양한 스토리를 발굴하고 이들 이야기거리들이 부산 관광에서 문화상품으로까지 이어지도록 한다. 지역의 스토리 원형을 창조적으로 가공·개발하기 위해 스토리 원형 집적화(DB) △지역 인물·문화·관광 스토리텔링 작업 △부산문화 킬러 콘텐츠 발굴 등의 사업 추진을 통해 부산 이야기가 지역을 뛰어넘어 세계인과 함께 하는 콘텐츠로 발전하는데 힘을 모은다.



부산, 교통정보·관광정보 '유비쿼터스도시'로의 도약

부산시는 2005년부터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U-City 마스터플랜을 수립, U-교통, U-관광, U-헬스, U-방재 등 8개 분야 56개 U-City 사업(1단계:2006~2011년, 1,176억 원)을 시행해 U-City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U-교통으로 운행 중인 시내버스의 실시간 도착정보와 모바일을 이용해 각종 교통정보를 손쉽게 얻고 다양한 관광 정보를 U-투어 앱을 통해 실시간 검색한다. U-헬스로 구급환자를 응급·원격진료하고 재해위험 시설물에 대한 감시와 자연재해 예·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부산시의 기존(1단계) U-City사업은 U-헬스 등 분야별로 추진해 왔으나 2단계(2012~2016년, 3,500억 원) 사업은 부산시를 세계적인 유비쿼터스 도시로 업그레이드 한다는 전략을 세워 두고 있다. 경제와

시민생활, 문화, 녹색이라는 4개 테마와 윈도실(산복도로), 서부산(산업단지), 동부산(해운대, 센텀시티) 등 3개 권역별 공간개념을 추가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U-기술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제공할 수 있는 도시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U-생활방법 서비스와 스마트워크 서비스, 차량공유서비스, 스마트 에듀피아, 노인 건강지킴이 서비스, 탄소포인트 서비스 등 31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계획이 완료하면 부산은 세계 최초 U-City를 완성하고, 2014년 부산에서 열리는 IT총회와 더불어 전 세계에서 '스마트시티'의 성공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전역~하동 슬로시티 관광열차 운행

하동군은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부전역~하동역 간 20차례 관광열차를 운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한국철도공사와 맺었다. 무궁화호 관광열차는 오전6시 40분 부전역을 출발, 구포역(6시 57분), 마산역(8시 8분), 진주역(9시 34분)을 거쳐 오전 10시 17분

하동역에 도착한다. 하동역에 도착하면 아갈면으로 이동, 최 참관대 토지문화 기행, 웰빙 슬로푸드로 점심식사, 농정호 자연기 여행을 한 뒤 부산으로 향한다.

부산 찾는 외국인 관광객 급증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올 들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한 지난해 기록(236만6천863명)을 훌쩍 뛰어넘을 추세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다른 도시를 거치지 않고 부산으로 바로 입국하는 관광객이 급증했다.

올 들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5월까지 102만5천686명,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같은 기간 87만8천285명보다 14만7천401명이 더 많다. 16.8%나 늘어난 것. 6월에도 라이온스 부산세계대회 참가자 1만5천여명과 중국 마리아나 회장품회사 인센티브 투어단 1천 600여명 등 외국인 관광객이 대거 부산을 찾았다.

국가별로는 일본인이 25만8천54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7% 증가했다. 중국인도 19만5천40명으로 21.3% 증가했다. 대만인은 2만4천977명으로 지난해 1만4천395명보다 무려 73.5%나 늘었다. 이밖에 러시아인(19.9%↑), 미국인(18.1%↑), 홍콩인(18.1%↑), 캐나다인(15.2%↑), 독일인(9.0%↑) 등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김해공항과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직접 입국하는 비율은 65.1%로 나타났다. 다른 도시를 경유하는 비율 34.9%보다 월등히 높다. 일본인과 중국인 관광객은 비행기나 배로 직접 부산을 찾는 비율이 각각 70%와 45.3%씩 증가했다.

특히 김해공항을 통한 외국인 입국자는 지난 5월까지 29만5천6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만1천102명보다 39.7%나 급증했다.

부산항, 개항 이래 가장 많은 크루즈 관광객 몰려 올 들어 지난 달까지 46척 입항, 관광객 작년 동기 246% 급증



부산항에 크루즈 관광객이 부산항 개항이래 가장 많은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달 말까지 46척의 크루즈 관광선이 부산항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2척과 비교하면 389%가량 증가한 역대 최고치다.

출입국사무소는 또 오는 9월까지 52척이 더 입항하는 등 12월 말까지 모두 130척의 크루즈선이 부산항에 입항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부산항 입국자 수도 늘고 있다. 지난 2010년 8만 8300여명이었던 크루즈 승객은 2011년 3월 일본 대지진 탓에 44% 감소한 4만

9800여 명이 그쳤다. 하지만 지난 6월 말까지 4만 600여 명이 부산항으로 입항, 지난해 같은 기간(1만6500여 명) 입국자 수도보다 246%나 증가했다. 이처럼 크루즈선 관광객이 늘어난 것은 예전보다 크루즈 관광을 즐기는 중국인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올 들어 지난 달 말까지 부산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은 5600여 명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00명 보다 700%가량 증가한 수치다. 출입국사무소는 올해 말까지 총 2만5000여 명의 중국인이 부산항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효영 기자

동부산 관광단지

비치지구내 콘드라 힐튼호텔 도시·레저 지구내 10만㎡ 규모 종합쇼opping몰 국내최대 아쿠아리움도 건립 예정

동부산관광단지에 대규모 복합쇼핑몰이 생기고, 국내 최대 아쿠아리움이 들어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도시공사는 동부산관광단지 도시레저와 비치지구 사업자를 공모한 결과 국내 굴지의 유통 대기업이 도시레저지구 내 상업시설부지에 사업제안서를 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수족관 운영 그룹도 같은 지구 내 아쿠아리움에 아쿠아리움을 조성하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공사는 8개 업체가 11개 시설에 사업제안서를 냈다고 밝혔다. 대기업이 낸 사업제안서에는 4개 상업시설 필지를 합쳐 총 10만㎡에 이르는 부지에 복합쇼핑몰을 건립하는 방안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4000㎡ 규모인 신세계 센텀시티의 2.5배에 해당하는 부지 면적이다. 신세계 센텀시티가 세계 최대 백화점으로 기념스북에 등재된 점을 고려하면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아직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어떤 형태의 판매시설이 될 지는 안갯속이다. 하지만 센텀시티 내 신세계·롯데백화점, 명품 아울렛인 기장군 신세계체셀을 연결하는 동부산 쇼핑벨트 형성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쿠아리움 사업제안서를 낸 C사는 경남 거제시에 대규모 아쿠아리움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회사는 거제시에 추진 중인 아쿠아리움보다 더 큰 시설을 동부산관광단지에 조성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도시공사 측은 국내 최대 규모 시설(1만㎡을 지을 수 있도록 C사와 협의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최근 완공된 여수엑스포 수족관이 3400㎡로 가장 크다. 부산 최대 규모(객실 800실, 연면적 19만4000㎡)의 호텔인 힐랜드마크호텔 사업(비치지구)에는 총 3개 업체가 제안서를 냈다. 국내 골프 리조트 전문기업과 콘도·리조트 전문기업, 부산지역 기업 등이 경쟁하게 된다. 도시레저지구 내 브랜드호텔사업에는 지역기업인 W사가 사업제안서를 냈다. 비치지구 내 한옥마을 조성에는 지역 건설사인 D사가 참여 의사를 보였다. 그러나 현재 관광단지에 주거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이 사업은 아직 전망이 불투명하다.

오는 2017년 완공 예정인 동부산관광단지 사업은 도입 시설 270만㎡, 콘도마크와 운동·휴양지구 내 골프장, 국립과학관 등 6개 시설 170만㎡는 이미 투자자가 결정됐다. 면적으로는 전체의 65%다. 이번 공모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17개 시설이 확정되고 전체의 절반인 17개 시설만 남게 된다.

이효영 기자

남항 국제 수산물관광단지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

부산항 남항 국제수산물관광단지 조성사업에 2031년까지 2조4573억원 투입

부산시는 자갈치시장, 영도, 부산공동어시장 일대 154만4000㎡ 부지에 기존 수산물 유통·생산 기능을 넘어 관광 콘텐츠까지 포함한 남항 국제수산물관광단지(이하 남항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최종 용역 보고회를 가졌다고 최근 밝혔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시는 오는 2030년까지 총사업비 2조 4573억 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며, 사업 완료 시 8조2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만1500명에 달하는 고용 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항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크게 ▷자갈치시장 일대 수산물관광문화타운 사업 ▷공동어시장 일원 수산물복합유통타운 조성 ▷영도 일원 한국 근대역사문화타운 건립 등 3가지로 이뤄져 있다.

수산물관광문화타운 사업은 자갈치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작업으로 비위생적 수산물 유통, 주차 및 휴식공간의 부족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다양한 먹거리 및 볼거리를 테마로 연계 개발하고, 또 공동어시장 건물의 재생을 통한 거점시설 구축과 지역의 복합관광랜드마크로 육성하는 수산물복합유통타운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동어시장 내 위관 현장을 일련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영도 일대에 들어설 한국 근대역사문화타운은 현 수리조선소가 위치한 지역에 대한민국의 근·현대 역사를 계조명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해 역사적 관광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게 된다. 남항 일원은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발상지임과 동시에 조선산업이 태동한 곳으로, 한국 근·현대사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부산 해수욕장이 달라졌다

스마트해진 해운대, 야자수파라솔의 광안리, 문화콘텐츠 송도, 4200m²의 인공풀장 다대포 해수욕장 등

해운대·송정, 광안리, 송도, 다대포, 임랑, 일광 부산의 7개 해수욕장은 라이브공연, 제닝스눔 한마당, 송도를 즐겨락 공연, 차 없는 문화거리, 갯벌체험, 후릿그물체험, 멀티미디어쇼 등 즐길거리·놀거리들이 훨씬 다양해졌다.

‘해운대해수욕장’의 올해의 테마는 ‘스마트’다. 해운대가 ‘스마트’해진 것은 현금 없이 파라솔·튜브 등 각종 피서용품을 빌리고 편 의점·샤워장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이다. 고여 있지 않고 계속 물이 흐르는 세족장을 올해 처음 설치했고 매주 월·수·금 오후 4시 해수욕장을 출발, 달맞이인덕 문탠로드를 걷는 ‘갈맷길 케이스메이커’ 행사도 열었다.

매주 주말 오후 8시 ‘해운대 사랑 라이브 거리공연’, 첫째·셋째 토요일 오후 3시 자원봉사자들이 연주·춤·마술 등을 선보이는 ‘제닝스눔 한마당’이 펼쳐진다. 휴가 절정기인 8월 초순엔 워터스크린과 레이저를 이용한 ‘멀티미디어쇼’가 진행된다. 또 21일과 28일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해수욕장 관문인 구남로의 차량운행을 제한, ‘한여름밤의 축제, 구남로 차 없는 문화거리’를 운영한다. 이 거리에 선 DJ클럽파티·개그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며, 인근의 송정해수욕장은 야간경관조명을 새로 설치, 운영한다.

다대포해수욕장은 가장 화려한 변신을 했다. 대형 인공풀장과 생태체험학습장을 새롭게 설치했다. 인공풀장은 4200m²(가로 60m, 세로 70m) 규모, 5개 구역으로 이뤄져 최대 2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 샤워장, 매점, 화장실도 갖췄다. 풀장 안의 물은 수돗물을 사용한다. 생태체험학습장은 해수욕장 인근 갯벌 3만m²에 제철 초를 뿌려 만들었다. 주변에 해당화·순비기 나무 등도 심었다. 해수욕장 입구에 있는 ‘꿈의 낙조분수’도 명물. 하루 5차례 가동하고 밤에는 화려한 음악분수쇼를 선보인다. 다대포해양레포츠센터에선 해양스포츠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강습료 1만원만 내면 윈드서핑·요트·카약·래프팅·바나나보트 등을 2일 8시간 과정으로 마음껏 배울 수 있다. 이 해수욕장은 구명조끼를 무료로 빌려준다.

광안리해수욕장은 야자수 파라솔 30개를 설치, 이국적 풍경을 선사하고 백사장 7곳에 물이 흐르는 세족장을 설치했다. 또 매 주말 해변도로에 각종 공연 등이 열리는 ‘차 없는 문화거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샤워·탈의장에 소형탈수기를 설치해 피서객들이 젖은 옷을 빨리 말릴 수 있도록 배려했다.

송도해수욕장은 매주 토요일 K팝댄스, 비보이, 카테일쇼 등을 하는 ‘송도를 즐겨락’을 운영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해수풀장 아이사랑 존’과 송림공원 음악분수 공연 등을 준비하고 있다. 살사댄스 동아리 공연, 기타 동아리 정기연주회, 시낭송회 등 문화 콘텐츠를 보다 강화했다.

일광·임랑해수욕장은 조개잡이·후릿그물 등 체험행사를 마련했다. 부산시소방본부 구조대는 지역 7개 해수욕장에 모두 170여명이 배치돼 인명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 부산시는 “여름철은 물론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휴양지로 변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대현 기자



해운대 스마트비치



다대포 인공풀장



송도 송림공원 음악분수



광안리 야자수파라솔

박물관, 주말 현장체험학습 인기

부산박물관·북천박물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초·중·고교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과 여름방학을 맞아 부산지역 주요 박물관들이 운영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교육과 체험으로 활용하려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박물관 역시 학생들이 이수시도 들러 공부도 하고 여가도 보낼 수 있는 문화 휴식공간으로, 지역민들의 일상적 문화공간으로 자리하게 돼 반기는 분위기다. 지역 박물관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신사시대부터 삼한·삼국 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와 근대에 이르기까지, 부산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부산 대표 박물관. 매일 문화체험관에서 다도체험을 열고 있다.

또 ‘토요 박물관 교실’을 운영한다. 도슨트(관광객에겐 전시물을 설명하는 안내원)들이 한국의 탐과 장승에 관한 강의를 하고 학생들이 직접 탐과 장승을 만든다. 탐 만들기는 흙수 달에, 장승 만들기는 짝수 달에 한다.

부산박물관(610-7111)

1969년 주택공사를 하다가 발견한 북천동 고분군은 부산의 역사 중 특히 가야왕국의 문화를 보여주는 소중한 유적이다. 전시실과 야외 고분공원이 있어 가야시대의 매장 풍습을 지루하지 않게 관람할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으로 ‘가야전사 체험’과 ‘춘계 가야 유물 만들기’를 내놓았다. 가야전사 체험에서는 갑옷을 착용하고 활쏘기를 할 수 있다. 가야 유물 만들기 체험은 금동관, 갑옷, 투구 등 유물 모형을 만드는 것으로 매일 다른 주제로 진행한다. 북천박물관(654-4263)



부산근대역사관은 교과과정과 연계한 ‘사회교과서 속 부산 근대 여행’을 준비했다. 1876년 개항부터 일제의 부산 수탈과 근대화 과정, 해방과 한미 관계의 출발 등 근대역사관의 상설 전시 내용을 핵심사가 설명한다. 근대역사관 건물모형 만들기 체험 학습을 함께 진행한다. 이와는 별도로 ‘근대 문화유적 답사’를 마련했다. 근대역사관을 시작으로 초량왜관 등 근대 역사 유적을 답사하며 6·25전쟁 당시 피난민들의 생활상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이 밖에도 역사를 기록하기 전의 부산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부산박물관 동삼동 패총 전시장(403-1193), 지역의 항일 독립투쟁에 관한 기록과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부산광복기념관(660-7810), 임시수도기념관(244-6345), 1950년대 당시 피난민들의 생활과 역할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한 교육 전시 공간인 40세대문화관(600-4041), 부산민주항쟁기념관(790-7400) 등을 찾아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는 것도 색다른 재미가 될 것이다. 부산근대역사관(253-3645)

용두산공원, 토요일마다 전통민속놀이 즐긴다

10월까지 토요일 상설 공연

매주 토요일 용두산공원을 찾으면 흥겨운 우리 전통민속놀이 공연을 즐길 수 있다. 부산시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4시30분 용두산공원 야외광장과 상설공연장에서 ‘2012 토요일 상설 전통민속놀이마당(사진)’을 연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전통놀이마당은 지난해 회당 1천200여 명이 관람하며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

공연은 매회 구덕민속예술보존협회, 부산영산재보존회, 부산가야금연주단 등 1-2개 팀이 출연해 용왕굿, 다대포후리소리, 동래야류, 영산재 등 무형문화재 공연과 사물놀이, 고성오광대놀이, 관소리, 퓨전음악 등 전통민속공연 및 전통혼례체험 등의 다양한 체험마당을 선보인다. 단, 7-8월은 공연이 없다. 공연문의 (888-3485)



오륙도 생태관광 조성

역사·문화·자연을 아우르는 전국적 명소 될 것



오륙도SK뷰아파트단지 동측의 해맞이공원 주변

부산 남구 용호동 오륙도 부근에 산과 바다가 아우르는 '명품 생태관광(Eco Plaza)'이 만들어진다.

부산시는 '남구 용호동 산 197 옛한센인 정착 농원 일원 7만 753㎡'에 50억원을 들여 생태관광을 조성한다"고 최근 밝혔다. 생태관광이 조성되는 곳은 오륙도SK뷰아파트 단지 동측의 해맞이공원 주변으로 2000년대 초까지 한센병 환자들이 집단 거주하던 지역이다. 이 장소는 반딧불이 등이 사는 것으로 알려진 '이기대 도시수변공원'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또 2003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풍부한 해양생태계 자원을 지닌 오륙도와 마주하고 있다.

부산시는 "한센인 정착 농원의 철기와 대규모 개발로 인한 훼손을 치유하면서 시민들이 즐길 해양·육상을 아우르는 도심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이 지역에 포함된 일제 강점기의 지하 포진지를 활용한 생태박물관과 풍력 발전으로 빛을 밝히는 가로등 등 아이들이 친화적인 '녹색과학'을 직접 경험하는 학습장을 각각 조성할 계획이다.

또 아이들이 산새알·물새알 등 해양·육지 동·식물의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에코로드' (체험길)와 진통 마을 숲을 만들어 이광장이 해양생태계(오륙도)와 육상생태계(이기대 도시수변공원)를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올해 중 공모를 통해 구체적인 세부 설계를 마친 뒤 2013년 공사에 들어가 2014년 완공할 예정이다. 이 생태관광 조성은 부산시와 남구가 환경부 공모사업에 신청,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부산시 환경정책과 측은 "오륙도 명품 생태관광"은 주변의 갈매길, 오륙도-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이어지는 688km의 해파랑길, 그리고 오륙도 선착장 동측 절벽 위에 친환경적으로 설치될 60-70m 길이의 다리인 스카이워크 등과 어우러져 역사·문화·자연을 아우르는 전국적 명소로 이름을 날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영 기자

세계최초 국립해양박물관 개관

국내 최초의 종합 해양박물관인 국립해양박물관이 최근 개관했다. 해양박물관 외관은 바다의 물방울을 형상화한 역삼각형 모양으로 박물관 2~4층 상설전시관에는 해양 역사와 과학, 산업 등 다양한 유물과 전시물 등 1만여점이 선보인다.

'한경도해안실정지도첩', '죽도제갈' 등은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해양유물이다.

'지구와 천구의 세트', '해도첩' 등은 서양인들의 해양개척 길잡이 역할을 한 유물들로 아시아 최초로 공개된다.

지구와 천구의 세트는 영국에서 1790년에 항해를 위해 제작된 것으로 동해를 한국해로 표기했다. 해도첩은 1646년 영국의 유명 지도제작자가 해도만을 모아서 만든 것이다.

해양역사인물관, 해양문화관에서는 우리 조상들의 바다에 대한 인식과 삶, 신앙과 관련된 많은 유물과 자료가 전시된다.

항해선박 영역에는 국내 최대 크기로 복원(실물의 1/2 크기)한 '조선통신사선'이 눈에 띈다. 이밖에 해양생물의 성장과정을 보여주는

미니수조와 해양생물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터치풀, 지름 11m의 대형 원통수족관도 눈에 띈다. 해양 체험관에서는 원격조정 보트, 요트 레이스 체험을 통한 해양스포츠도 간접 체험할 수 있다.

해양과학관은 심해저 광구개발, 심해탐사, 남극 생태계연구, 얼음바다 속 생물자원연구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박물관 1층에는 해양도서 2만여권과 멀티미디어실을 갖춘 해양도서관이 마련됐다.

4층은 해양영토·해양과학·해양산업·4D영상관으로 이뤄져 있다. 심해광구개발, 심해탐사와 남극 생태계연구, 얼음바다 속 생물자원연구 등이 흥미롭게 다가온다. 덴마크 바이킹 선과 유류인 '4D 영상관'도 주목해볼 만하다. 박물관 측은 "나만의 등대그리기, '지키자 우리 땅' 독도 등 어린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상시 개설하고, 주말 체험학습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박물관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토요일은 3시간, 일요일은 1시간 연장 운영되고 매주 월요일은 휴관하며,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김대현 기자

New Tourism, New Waves 주제로 연차학술대회 아시아태평양 관광학회, 타이페이서 18차 국제관광학술발표대회

최우수 논문 발표자 1명에게 APTA 창립 이사장을 역임한 손해식 교수의 창립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상 'Sohn Hai Sik Award' 가 수여 되었다.

부산시 동아대학교국제관광학과에 본부를 두고 있는 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 관광학회(회장 임성택교수) 제 18차 연차 총회겸 국제관광학술발표대회가 지난 6월 26일부터 4일간 대만의 타이페이시 그랜드 호텔에서 14개국 200여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New Tourism, New Waves"를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는 대만 관광대학의 리명휘 총장이 대회를 맡았으며 부산의 동아대학교를 비롯한 대만 25개 관광관련기관의 협찬이래 진행되었다.

모두 140여편에 달한 발표논문은 관광 및 여가, 호텔 및 여행업, 항공 및 운송업, 해양 및 크루즈, 관광정보산업 등 광범한 영역에 걸쳐 주제 발표와 토론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대회 3일째 오후시간에는 시티투어에 이어 타이페이 국제 무역센터 33층에서 만찬을 가졌으며, 대회 4일째 역시 같은 장소에서 환송만찬

겸 시상식이 있었다.

시상은 발표 논문 가운데 우수논문 발표자 2명에 이어 최우수 논문 발표자 1명에게 APTA(아시아태평양 관광학회: Asia Pacific Tourism Association)의 약자) 창립 이사장을 역임한 손해식 교수의 창립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상 'Sohn Hai Sik Award' 가 수여 되었다.

APTAs는 아시아지역 최초이자 가장 권위를 받고 있는 국제관광학술단체로서 1965년 9월 25일 한국 부산에서 창설되었으며, 지금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19개국 300여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다. APTAs는 2009년 국내에서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였으며 매년 6회 이상 발행하는 학회지 APJTRA(Asia Pacific Journal of Tourism Research)이 2011년부터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됨으로써 국제적인 사회과학 학술지로 인정받게 되었다.

해양관광의 새로운 가치 발견과 지방관광활성화 2012년 울산 국제관광학술대회 겸 제 72차 한국관광학회 학술대회발표대회

울산광역시 남구가 주최·김두겸 남구청장(하고 (사)한국관광학회)에 명대학교 오익근 회장, 배재대학교 정강한 조직위원장)가 주관한 '2012 울산 국제관광학술대회 겸 제 72차 (사)한국관광학회 학술발표대회'가 지난 7월4일부터 3일간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월드컵 경기장 컨벤션 센터에서 국내외 관광관련 학자, 연구자, 사업가, 전공 대학생 등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울산광역시, 한국관광공사, 백산출판사 등 10여개 기관·단체의 후원아래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는 "해양관광의 새로운 가치 발견과 지방관광활성화"를 주제로 하여 일반세션에 85편의 논문

과 포스터 세션에 15편의 논문이 각각 발표되었으며 특히, 울산의 '고래관광'을 새롭게 재조명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관광학술대회에는 국제적 관광저널인 Journal of Travel Research의 편집장인 Dr. Rick Perdue 교수, Annals of Tourism Research의 전 편집장인 Dr. Jatur Jatur 교수, Tourism Management의 편집장인 Dr. Chris Ryan 교수 등 국제관광학계의 기라성 같은 스타들이 초청되어 기조연설과 특별세션에 참여하여 지대한 관심과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손해식 편집위원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 시민참여형으로 추진

공원·해양센터·해양문화지구 등 시민의견 반영

부산항 개항 이래 최대 프로젝트인 북항재개발사업이 시민참여형으로 추진된다. 부산항만공사(BPA)는 최근 시민단체와 학계, 문화계 등 전문가들로 '부산항(북항) 라운드 테이블'을 구성해 재개발사업 현장인 옛 3부두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부산항 라운드 테이블'은 지난 2월 부산항만공사(BPA)와 GS건설 컨소시엄이 발표한 '북항재개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공공성 보장 등 시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시민단체 주도로 만들어졌다.

이 기구는 북항재개발사업과 관련해 공원·해양센터 계획, 해양문화지구 개발방향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시민 의견과 전문가 견해를 취

합, 실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는다.

총 36명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도시계획 및 디자인분과, 문화예술 및 프로그램 기획분과, 환경, 복지 및 시민참여분과 등으로 나눠 각 분과에 맞는 주제를 정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각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분과별 위원 3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월 1차례 정기회의와 전체회의를 갖는다.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항 라운드 테이블'과 자문위원회, 관련 기관 추진협의체 등을 통해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필요할 경우 국토해양부에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다.

북항, 10만t급크루즈부두, 국제여객선 부두 착공

총 공사비 566억원 투입, 2014년 11월 완공



부산 북항에 10만t급 크루즈선이 접안할 수 있는 크루즈부두와 국제여객선 부두가 동시에 들어갔다

부산항 북항에 10만t급 크루즈선이 접안할 수 있는 크루즈부두와 국제여객선 부두가 들어선다. 부산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는 최근 북항 크루즈부두·국제여객선 부두 축조공사 착공식을 갖고 공사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기존 북항 3부두와 4부두를 연장해 국제여객선 부두 718m와 크루즈부두 360m를 축조하는 공사다. 공사기간은 30개월, 2014년 11월 완공 예정이다. 총 공사비는 566억원.

부두 축조공사가 끝나면 북항에는 10만t급 크루즈선 1척과 여객선 2만t급 5척, 500t급 8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다.

특히 10만t급 크루즈선은 전체 길이가 300m 폭 40m 규모의 대형

선박. 이 배가 접안하기 위해서는 연장 360m의 부두와 전면수심 12m가 필요하다. 현재 부산항에 입항하는 대형 크루즈선은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8만급 규모의 크루즈부두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도심지와 떨어져 있어 관광이나 쇼핑에 불편하는 지적. 북항 크루즈부두는 도심지인 부산역 앞에 위치해 이 같은 불편을 크게 덜 수 있을 전망이다. 김영복 부산항건설사무소소장은 "부산항은 컨테이너 선박이 주로 접안하는 항만이었으나 앞으로는 국제해양관광 거점으로 개발하고 있는 북항재개발과 더불어 초대형 크루즈선박이 도심에 바로 접안함으로써 위상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동백섬~이기대 해상케이블카 등 본격추진

비수기 관광활성화 위해 컨벤션호텔, 의료관광 전문호텔도..

해상케이블카와 캡슐바이크, 레일바이크, 컨벤션호텔, 의료관광 전문호텔 등이 부산의 신규 관광사업으로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최근 부산시청에서 '부산관광공사 설립타당성 검토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용역결과 부산관광공사 설립이 시급하다고 보고 우선 부산관광컨벤션부두와 시티투어, 아프리카 등을 통합해 오는 11월 공사를 출범시킨다는 부산시의 방침이 재확인됐다.

특히 이날 보고회에서는 향후 부산관광공사 출범 후 추진할 주요 수익사업이 제시됐다. 해상케이블카와 해상 캡슐바이크, 레일바이크, 컨벤션호텔, 의료관광전문호텔, 관광전문쇼핑센터, 부산그랜드세일 등이 그것이다. 이들 신규사업은 부산의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공사의 자체 수입도 늘려줄 핵심사업으로 꼽혔다.

해운대구 동백섬에서 남구 이기대를 잇는 해상케이블카는 최우선 사업으로 제시됐다. 비수기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해안경관을 조망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꼽혔다. 사업비는 440억 원으로 연간 100만 명이 이용할 경우 25억 원의 순이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캡슐 안에서 페달을 밟아 이동하는 놀이시설의 일종인 캡슐바이

크는 광안대교 하단부에 설치하는 테마상품으로 제시됐다. 2006년 구글의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관광테저 시설로 현재 뉴질랜드의 한 공원에 설치돼 인기를 모으고 있다.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를 활용한 레일바이크 사업도 자체 수익사업으로 제시됐다. 연간 120만 명이 이용할 경우 110억 원의 수익이 예상된다.

컨벤션호텔은 해운대 지역에 비즈니스호텔이 부족함에 대해 2백스코 건립에 따른 숙박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건립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장소는 아프리카 유스호텔 내 골프연습장 부지가 제시됐으며, 사업비는 300억~350억 원으로 추정됐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핵심 기반시설로 꼽히는 의료관광전문호텔은 부산 해운대구 옛 송정초등학교 부지에 279억 원을 들여 짓는 방안이 제시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제시된 부산관광공사 자체 수익사업들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공사 출범 후 사업추진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령산 케이블카 설치, 전망타워도 세운다

부산시는 광안리와 해운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황령산에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케이블카와 전망타워를 민자사업 형태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황령산 케이블카는 국내 최장 길이(1975m)의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 급 또는 그 이상 규모로 설치하기로 시는 방침을 정했다. 사업비는 통영 케이블카(170억 원)보다 많은 400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설치 노선은 황령산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곳으로 알려진 KT 송신탑을 종착지로 우선 고려하고 있으며 출발지는 수영구 광안동 옛 부산시공무원교육원과 남천동 시장관사 인근, 남구 대연동 황령터널 인근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시는 이들 후보지로 놓고 안전성과 환경 훼손 문제 등을 검토해 확정한다.

전망타워는 케이블카 종착지인 KT 송신탑 인근에 높이 300~400m

규모로 설치된다. 전망타워 규모는 서울의 상징인 남산타워(236m)와 일본 후쿠오카타워(234m)보다 높다. 시는 이곳에 컨벤션 시설과 레스토랑 등 부대시설도 포함할 계획이다.

시는 황령산 종합관광계획의 핵심 시설인 이들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민자사업자 한 곳만 선정해 동시에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민자사업이 충분한 자본력 없이 무리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에만 의존해 어려웠던 만큼 사업자의 자본 동원 능력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 "통영 케이블카는 개통 후 4년 만에 사업비를 환수했다"며 "황령산 케이블카는 전망타워와 함께 부산의 이름다운 해안을 조망하기에 적합한 만큼 통영 케이블카보다 훨씬 사업성이 높다"고 했다.

포구에서다



두모포 풍어제

기장 죽성리 두호마을은 조용한 어촌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역사가 깊다. 두호마을은 '두모포(豆毛浦)'라고도 한다. 그런데 부산의 옛 지명에도 인연이 깊는데 부산포의 옛 이름이 바로 두모포였다. 그러나 두모포가 두호마을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부산 사람 중에도 그리 많지 않다.

옛날은 돌피로서 두매, 또는 두모, 드매라고 발음하였고 두모(豆毛)라 표기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두모포진'이라는 수군진영이 있었다. 이곳에 '두모포영'이 설치된 것은 신라시대부터로 여겨지는데 임진왜란으로 기장현이 발원되자 1609년(광해군 원년) 또는 1629년(인조 7)에 두모포 만호진영을 부산성으로 옮겼다.

바다 사람들의 삶과 애환이 깃들어 있으며 이들의 평안과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기장 전통풍어제인 '두모포풍어제'는 이곳 주변에 있는 두호, 대변, 학리, 칠암, 이천 등 5개 마을별로 열리던 것이 일원화되어 매년 음력 경칩 대보름 전후로 5-7일간 이곳에서 주로 열린다.

기장바닷가라면 어디서나 바닷가 마을이면 볼 수 있는 풍경이 바로 풍어제 모습이다.

두모포풍어제(‘풍어제(豊漁祭)’란 일종의 굿 행위, 아무리 식자들이 굿을 ‘미신’이라 폄하하지만 역시 우리 민속신앙의 하나다. 그것도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간직한 우리 정신 그 자체다.

노란 저고리, 연분홍 치마에 흰 머리띠를 걸끈 묶은 무당이 구성된 입심을 자랑하며 덩실덩실 어깨춤을 춘다. 무당 앞으로는 꿩과리, 장, 장고 연주자들이 귀를 찌를 듯이 큰 소리로 악기를 두드려댄다.

백년 이상 계속된 풍어제 내용은 예전에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에서 세월의 변화 속에 이젠 가족의 건강과 직장에서 일 잘하고 돈 많이 벌도록 해달라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그 기원의 간절함과 소박함은 변함이 없다.

‘죽성리(竹城里)’는 월전·두호·원죽마을 등 3개 마을을 일컫는다. 이 가운데 두호마을은 110가구, 450여 명이 거주하는 곳으로 이 일대에서는 비교적 큰 마을이다. 이곳에 드라마 세트장이 있다. 드라마 <드림> 세트장 ‘성당’이다. 2009년에 세워진 건물, 이곳에는 드라마 ‘드림’ 찍기 위해 세워진 그림같이 아름다운 성당이 있다. 2009년에 세워진 성당 오른쪽에는 두손을 맞대고 기도하는 성모상이 있다. 그래서인지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지금도 많다.

바다와 마을의 형국을 조망하기 적당하다. 마을 뒤로 낮은 산이 있다. 그 산 정상에 성곽이 보이는데 바로 ‘죽성왜성’이다.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도공들을 일본으로 끌고 간 그 본영이기도 하다. 눈을 돌려 바다를 보면 녹색의 동태가 보인다. 늘 그자리에 있는 바다 위의 동태. 그 뒤로는 온통 바다양식장이다. 물론 기장의 명품인 김을 양식하고 있다.

지금은 신앙촌 철조망으로 둘러쳐져 들어갈 수가 없는 ‘용두대(龍頭臺)’는 기장 죽성마을을 황학대의 위쪽 부분(일광 쪽)에 돌출되어 있는 ‘대’를 뜻한다. 용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용두대 앞에는 옛날 어사가 놓았다는 ‘어사암(御使岩)’과 매처럼 생겼다는 ‘용암(鷹岩)’이 있다.

드라마 세트장 입구에서 길을 계속 따라 가다보면 도로는 왼쪽으로 꺾어지고 직진하면 방파제로 이어진다. 그 가운데에 낮은 언덕바지가 있다. 포구 끝자락에 위치한 낮은 언덕 위의 뒷동산. 소나무가 무성하다. 기암괴석과 노송이 어울려 절경을 자랑하는 이곳이 고산 윤선도가 7년간 유배생활을 하며 시 6편을 남겼다는 두호마을의 명소인 ‘황학대’이다. 원래는 이곳도 ‘송도’라는 흔한 이름을 가진 섬이었다.

윤선도가 유배생활을 할 때 죽성리 백사장 건너에 있는 이 송도를 바닷가의 누런 큰바위가 한마리의 학처럼 생겼다고 해서 황학대라 이름짓고 매일 이곳을 찾아 한을 삭였다고 한다. 그러니깐 송도라는 섬이 있는데 지금은 매패이 되어 육지가 된 것이다. 윤선도는 이곳에서 <견



▲ 황학대 성모마리아상



▲ 흥골에서 온 관광객 한성진, 김수남 부부가 무모담을 모시고, 영화 촬영지 소문을 듣고 이곳을 찾았다. (성당앞에서)

회요)와 <우주요> 등 우주같은 시 여섯 수를 남겼다고 한다.

윤선도 하면 보길도를 연상하지만 기장 역시 윤선도의 고장이기도 하다. 조선시대 정철·박인로와 함께 ‘3대 가인’으로 칭송받던 고산 윤선도. 그는 30대인 1616년 당시 국사를 진행하던 영의정 등의 죄상을 밝히는 상소문을 올린 죄로 함경도 경원으로 유배되었다가 그곳에서 1년을 보낸 뒤 다시 기장으로 이배되었다.

유배생활에 들어간 고산은 백사장 건너에 있는 송도를 옛날 신선이 황학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중국 양자강 하류에 있으면서 이 태백도연명 등 많은 시객들이 찾아 놀던 황학루에 비교하여 ‘황학대’라 이름 짓고서 이곳을 매일 찾았다는 기록이 있다. (차성가)에는 ‘두호개 앞을 두고 의색진기 중을 명다. 황학루에 어디까지 백운이 우유하다’라고 이곳이 명승지임을 알리고 있다.

한편 황학대에서 바라보는 일출과 바다 위에 떠있는 거북바위 위로 솟아오르는 일출은 울산 간절곶 일출 못지않은 절경이다.

방파제 끝자락으로 걸어가면 하얀 동태가 있다. 바로 두호포구방파제동태다.

죽성리는 지금이야 그렇지만 옛날 ‘죽성8경’으로 소문났을 만큼 아름다웠다 한다. ‘죽성리’라는 이름은 이곳에 신라시대의 성이었다 토성이 있고, 이 토성 아래쪽에 두모포 만호영의 성이 있는 석죽성과 또 임진왜란 때 왜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내에 2곳 뿐이라는 ‘국수당’도 포구 왼쪽 언덕에 자리잡고 있다. 국수당에는 400년은 족히 됐을 듯한 소나무가 분만하다. 400여 년 전 국가기원제를 지내기 위해 조성된 국수대는 기우제나 국가 혼란 시 기원제를 올리던 곳이다. 다섯 그루의 해송이 제당을 둘러싸고 있는데,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한 그루처럼 보인다는 참으로 신비한 곳이다.

왜성과 토성 주변에는 아직도 당시 전쟁 때 화살 계로를 공급했던 대밭이 남아있다. 왜성 왼쪽의 봉우리는 남산봉수대가 있는 ‘봉대산’이다. 남산봉수대는 985년(고려 성종)에 설치하여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때 폐지되었지만 지금까지도 옛 모습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다.

황학대 앞은 사실 포구를 위해 매립된 곳이라 제법 넓다. 그리고 이 포구를 따라 왼쪽으로 가면 바다는 내륙 길속이까지 이어져 있다. 물론 이 바다는 결국 하천과 연결된다. 이 하천이 바로 ‘죽성천’이다. 그러니깐 하천과 바다의 합수점이 이곳 두호포구다. 마을은 이 포구를 중심으로 이어진다. 오른쪽은 바닷가요 왼쪽은 마을이다. 그리고 계속 내륙으로 들어가면 원죽마을이 나오고 더 지나가면 그 시온산 업공장이 있는 신앙촌이다.

김봉오 btbusan@hanmail.net



찾아가는 길
기점시장에서 현 마을버스를 타고 가이한다. 송송치의 경우 해운대에서 동남해안 해안도로30분거리, 송정에서 31번 지방도를 타고 기장군청 못미처로 우회전후 죽성리로 향하면 된다.

도시 숲 늘려 푸르게... '그린 부산' 올해 472억 투자 쌈지공원 27곳·산림공원 6곳·학교숲 10곳 추가 조성

부산 도심에 쌈지공원 27곳과 산림공원 6곳, 학교숲 10곳이 추가로 생긴다.

부산시는 올해 산림분야에 472억원(국비 254억원, 지방비 218억원)을 '그린 부산'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도시 숲 확충 4개 사업에 193억원, 산림문화 서비스 확대 9개 사업에 71억원, 친환경 산림자원 육성·보존 9개 사업에 208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도시 숲 확충을 위해 △녹색쌈지공원 27곳(81ha) △산림공원 6곳(11.3ha) △가로수길 7곳(2.7ha), △학교숲 10곳(1.6ha) 등을 추가로 조성한다.

국내 최대 도심 수목원인 해운대수목원 1단계 2차 공사로 진행되고, 녹색 복지공간 8곳도 만든다.

산에서 등산을 즐기거나 숲에서 휴양을 즐기려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산림문화 서비스 확대 사업도 적극 펼친다. 이를 위해 트레킹 숲길, 금정산 숲길, 장애 없는 숲길, 장산 생태숲, 엄광

상 체험의 숲, 달음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해 실시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아이들이 숲 속에서 마음껏 뛰놀며 자연을 배울 수 있는 '숲 유치원'도 지난해 5곳에서 올해 15곳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등에 해안 방재림 14km를 조성, 주민들의 휴식터로 활용하며 지친데일에 대비한다. 이밖에 해운대 장산 일대 도깨비 가지, 돼지풀 같은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과 전체 산림지역 소나무 재선충병 청정지역추진, 등산로 정비 같은 사업도 지속적으로 펼친다.

정관수 부산시 푸른산림과장은 "부산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산림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며 "올해도 시민들이 생활하는 곳과 가까운 곳에서 숲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산림문화 서비스와 휴식공간을 발굴하고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푸른산림과(888-3634)

낙동강하구 탐방체험장, 배타고 구석구석 둘러본다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시간 운행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하구 일대를 배를 타고 직접 살펴볼 수 있는 '낙동강하구 탐방체험장' 이 문을 열었다. 부산시는 낙동강하구 탐방체험장에서 선박과 보트를 이용한 탐방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탐방체험장은 을숙도에서 배를 타고 낙동강하구의 지형과 자연생태를 살펴볼 수 있는 선박·보트탐방 프로그램은 3개 코스가 있다. 선박탐방은 30인승 배를 타고 탐방체험장을 출발해 멍구머리등-백합등-신자도-가덕도-도요등-다대포해수욕장-물문대를 돌아 다시 체험장으로 돌아온다. 소요시간은 3시간, 참가비는 2만원.

보트탐방은 10인승 보트를 타고 도는 것으로 2개 코스가 있다. 1코스는 탐방체험장-하구둑-감문-맥도생태공원-삼락생태공원-탐방체

험장을, 2코스는 탐방체험장-을숙도-장자도-명지갯벌-대마등-전우도-탐방체험장을 각각 둘러본다. 1코스는 2시간 2만원이며, 2코스는 3시간 3만원이다. 모든 코스에는 생태해설가가 함께 탑승해 해당 지형과 서식 생물, 환경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선박·보트 탐방 프로그램은 다음달 말까지 매주 토·일요일 운영한다. 낙동강하구에코센터 홈페이지(wetland.busan.go.kr)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부산시는 낙동강하구 탐방체험장 개장에 맞춰 친환경 전기버스를 을숙도 일대에서 시범 운행했다. 부산에서 처음 운행하는 이 전기버스는 친환경적으로 알려진 압축천연가스(CNG)버스보다 이산화탄소 같은 유해가스를 70%가량 적게 배출하고, 탄화수소는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 또한 저상버스여서 장애인이나 어르신 등이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다.

이 전기버스는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어려웠던 을숙도 문화회관에서 옛 쓰레기매립장(가칭 메모리얼파크)까지 왕복 4km구간을 운행한다. 을숙도문화회관 앞 승차장과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앞 승차장에서 무료로 탈 수 있다.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시간 운행한다. 탐방체험장 탐방객들은 쓰레기매립장에서 내려서 산책로를 따라 1km정도 걸어가면 된다.

※문의: 낙동강하구에코센터 (209-2051-8)

대학생 '크루즈버디', 친절한 부산 앞장 영·중·일어 통역 자원봉사로 국제관광도시 위상 높혀



부산 찾는 국제크루즈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통역과 환영, 환송행사 등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학생 크루즈버디가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국제 크루즈 클럽하모니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대학생 크루즈버디)

올 들어 부산을 찾는 국제크루즈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부산시는 늘어나는 크루즈 관광객에게 '친절한 부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대학생 '크루즈버디'를 터미널에 배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영·중·일어 통역 등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학생 '크루즈버디'가 국제관광도시 부산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시는 '크루즈버디'가 크루즈관광객에게 보다 수준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근 국제크루즈선 '클럽하모니(2만6천)'에서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크루즈버디' 60명은 이날 부산외국어대 이효선 교수의 '부산의 크루즈사업 현황'에 대해 강의를 듣고, 크루즈선 상 체험에 나섰다.

'크루즈버디'는 부산외국어대에 본부를 두고, 중국어, 영어, 일본어 등 외국어 통역이 가능한 대학생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국제크루즈부두에서 크루즈관광객들에게 관광안내 홍보물 배

부, 통역 지원, 무료서류서비스 탑승 안내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올 들어서는 유니폼을 한복으로 교체해 외국 관광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환송 퍼포먼스를 여는 등 부산에 대한 좋은 인상을 관광객들에게 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크루즈버디' 대학생들은 '교통이 불편한 영도 동삼동 크루즈터미널까지 찾아가야 하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하지만 언어를 학문으로만 접하다가 실제 외국인과 소통하는 경험을 얻을 수 있고, 봉사시간을 학점으로 인정받아 크루즈버디로 활동하게 됐다'고 말한다.

한편, 부산에는 올해 총 66회의 국제크루즈가 입항한다. 16만5천여 명의 크루즈관광객이 부산을 찾은 전망. 부산시는 이에 따라 대학생 '크루즈버디' 배치와 함께 크루즈관광객에 관광지도 홍보물 등을 제공하고, 시립국악관현악단, 시립교향악단, 여성문화회관 예술봉사단 등의 다양한 환영·환송 공연을 마련하고 있다.

부산 찾는 울산·경남 의료·쇼핑객 늘어

저가대교와 부산-김해 경전철, 부산-울산고속도로 개통 등 부산과 울산·경남을 잇는 동남권 광역 교통망 확충으로 부산을 찾는 경남·울산지역 원정쇼핑객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의 '신용카드 지출 형태'로 본 부산지역 소비 유·출입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지역 내의 신용카드 지출(비중) 중 부산시민의 지출분은 80.8%, 부산 이외 지역민의 지출분은 19.2%로 조사됐다. 부산 이외 지역민의 지출분은 경남 50.3%, 서울 10.5%, 울산 9.8% 순이었다. 쇼핑유동은 2009년보다 지난해의 경우 경남(55.9%→57.1%)과 울산(29.7%→32.4%) 지역민 모두 부산에서의 지출 비중이 1.2%p, 2.7%p 각각 증가했다. 의료보존은 경남(46.0%→49.9%)과 울산(26.0%→35.3%) 모두 부산에서의 지출 비중이 각각 3.9%p, 9.3%p

3.9%p, 8.2%p 늘어났다.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울산과 경남 지역민의 부산에서의 쇼핑유동과 의료보존 지출 비중이 높아진 것은 대형 쇼핑시설과 종합병원 신설, 광역교통망 확충 등에 따른 부산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나아졌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지난해 부산으로 유입된 의료소비를 품목별로 보면 쇼핑유동이 27.7%로 가장 높았고, 음식·숙박 14.8%, 의료·보건 10.9% 등의 순이었다. 2009년과 지난해 사이 부산으로 유입된 품목별 소비비중 역시 쇼핑유동(26.5→27.7%), 의료보건(9.7→10.9%), 오락서비스(5.9→7.0%)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 관계자는 "부산이 외부로부터 소비유입을 촉진시키고 고부가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경쟁력을 높이고 서비스업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장 해변항, 공원·휴식공간 갖춘 '관광명소'로 탈바꿈



“동해지역의 대표적인 어업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해변항을 관광어항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시행한 다기능어항 공사 가 최근 준공됐다. 다기능어항이란 기존 어항 개발사업과 차별화되는 개념으로,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친수·휴식 복합공간을 더해 개발된 어항을 말한다. 2008년 7월에 착공 후 약 4년간 총 27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해변항 다기능어항 공사는 기본 콘셉트를 항구에서 장시간 머물며 쉴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해변항 내를 산책할 수 있는 약 2.5km의 둘레길이 조성됐다. 또한 별치틸이장이 신설됐고 공원도 조성됐다. 전망데크·보도교 등 관광객이 쉴 수 있는 친수시설 설치와 함께 약 3만 3천㎡의 넓은 배후부지도 조성됐다.

주요 국가시설은 집안시설(946㎡), 별치틸이장(150㎡), 선양장(44㎡), 보도교(65㎡), 호안(40㎡), 친수시설 등이다. 지자체 시설로는 친수시설(별치틸장, 주차장, 상징물, 화인 등)이 들어섰다.

동해어업관리단과 기장군 측은 해변항 다기능어항 조성사업이 착공된 2008년에는 17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방문했으나 사업준공 효과에 따른 관광객 방문 수요 증가로 10년 후인 2017년엔 약 260만 명 정도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의 공동개발자인 기장군에서도 올해 총 11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 해변항의 명물이자 지역 특산물인 멸치를 홍보할 전시관과 광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부산동부수협에서도 약 40억~50억 원을 투자해 어업인 지원시설과 워킹존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해변항은 1971년에 국가어항으로 지정돼 2007년까지 총 62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방파제(810m), 물양장(919m), 호안(809m) 등 수산기반시설을 완공함으로써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을 위한 수산기능에는 불균이 없도록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동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해변항 관광기능 조성으로 올해 이후에는 매년 약 200만 명 이상의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기장지역에서 개최되는 멸치 및 장어축제와 더불어 해변항이 부산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돼 어업의 관광소득 향상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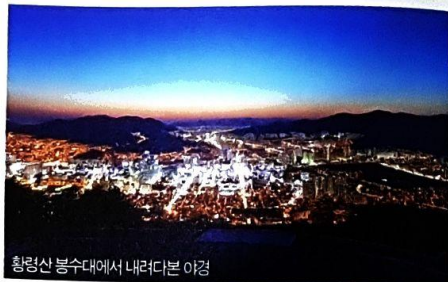
부산 관광인프라 다양해진다 기장 도예촌·광안리 웨일크루즈·생태관광 등

기장도예촌, 서면 관광테마거리, 황령산 봉수대 꽃길, 광안리 웨일크루즈... 부산의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가 보다 다양해진다. 부산시는 2012년 관광진흥계획에 따라 관광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기장도예촌, 부산진구 문화오피스로 관광테마거리, 황령산봉수대 관광자원화, 용호만 유람선터미널, 광안리 웨일크루즈, 동해안 탐방로, 해운대구 우동 운촌항 포토카멜리아, 해송교-송정 간 관광테마거리 등의 관광 인프라를 올해부터 2018년까지 새롭게 조성한다.

현재 기반공사 중인 기장도예촌은 930억원을 들여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일원(91만8천㎡)에 2018년까지 들어선다. 도예박물관, 도예연구소, 공방, 도자기 테마파크, 호텔 등을 갖춘다. 황령산봉수대는 진입로에 꽃길 등 공원을 만들고 전망데크와 경관조명 등을 조성해 관광지로 탈바꿈한다.

또한 웨일 크루즈는 광안리 앞바다에 테마별체험관·극장·컨벤션홀·식당·공연장·호텔 등을 갖춘 9천급 대형 선박을 정비시키는 것. 민자 1천억원으로 추진, 내년 운영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황령산 봉수대에서 내려다본 야경

전통시장 부전마켓타운, 관광특화시장으로 거듭나 일본인 관광객 필수 관광코스도 각광



부산진구 서면의 부전마켓타운. 부전시장과 부전종합상가, 서면종합시장, 부산전자종합시장, 부전상가, 부전인삼시장 등 6개 전통 시장으로 이뤄진 부전마켓타운은 부산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의 하나다. 부전마켓타운은 '시장과 문화의 만남'이라는 콘셉트 발굴을 통해 전통시장의 성공적인 변신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라는 평가와 함께 지난 2010년 부산발전연구원이 부산을 빛낸 10대 히트상품으로 선정했다. 부전마켓타운의 명성은 이미 부산을 넘어 일본에까지 알려져 있다. 부산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의 필수 관광코스일 정도로 각광받고 있다. 저렴한 물건값에 다양한 문화공연까지 즐길 수 있어 한류 붐을 타고 외국인 관광객의 발걸음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부전마켓타운은 최근 몇 년 사이 부산시와 시장 상인들이 주축이 돼 이른바 '문화야시장' 만들기에 적극 나섰다. 문화야시장은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가 윈스톱으로 이뤄지는 관광형시장을 의미한다. 부전마

켓타운은 지난 2010년부터 매년 4월과 10월 사이 토요일 저녁마다 '문화야시장'으로 변신, 손님맞이에 나서고 있다. 예술작품·수공예품·공예품 등을 판매하는 예술가들이 '낙타장터'를 비롯해 '시민장터'에서는 추억의 물건과 문화 흔적이 있는 물건들을 사고파는 베품시장이 열린다.

국립 부전역 앞 상심무대에서는 무용·연극·김거리댄스·마일·거리극·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퍼포먼스 중심의 공연이 펼쳐진다. 이색장터와 문화공연이 주를 이룬다. 열리면서 상인들의 매출은 늘어나고 시민과 관광객 증가로 시장은 활력으로 넘쳐난다.

부산의 전통시장이 쇼핑·관광이 한 곳에서 이뤄지는 특화전문시장으로 거듭난다. 더 많은 즐길거리, 볼거리, 먹거리를 갖춘 경쟁력 높은 시장으로 탈바꿈한다. 부산시는 2016년까지 자갈치·부산진·구포시장 등 부산대표 전통시장 10곳을 특화전문시장으로 만들기로 했다. 부산시는 부산전자종합시장은 가정용 전자제품 특화시장으로 만든다. 부전인삼시장 '전감식품', 골드테마거리 '귀금속', 자갈치시장 '꽃어·견어몰', 부산 새벽시장 '과일·채소', 충무동새벽시장 '야채·과일', 부산진시장 '한복·주단', 자유시장 '생화·조경', 평화시장 '신발·의류', 구포시장 '민속5일장' 등의 특화시장으로 키운다.

이들 시장에는 시장별 특성을 살려 부산의 문화와 정을 두루 경험할 수 있는 부산관광의 새 브랜드로 화려하게 거듭난다.

이효영 기자

영도 남항시장, 문화·관광 명물시장으로 중기청, 2012년 특성화시장 지정... 볼거리·먹거리·즐길거리 풍성하게

부산 영도 남항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진흥원은 부산 골목시장을 대표하는 60년 전통의 영도 남항시장을 2012년 문화·관광 특성화시장으로 지정했다. 부산 전통시장 가운데 특성화시장 지정은 2010년 자갈치시장, 지난해 구포시장에 이어 세 번째다. 남항시장은 올해 국·시비 12억원 을 지원 받는다. 시설·경영현대화 등 하드웨어사업 뿐만 아니라 남항시장 고유의 정서와 이야기를 담은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를 발굴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한다.

남항시장을 찾는 고객의 보다 편리한 쇼핑을 위해 시장에서 산 상품을 집까지 택배로 배달해주는 '택배서비스'를 실시하고 고객센터,

상품홍보관을 만든다. 남항시장 버스정류장에는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하고 북카페도 들어선다.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역축제와 연계한 각종 이벤트가 활성화되고, 시장 체험교실, 시장 상인들이 이뤄진 음악밴드도 꾸린다. 특히 남항시장만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담아내 시장을 찾는 고객이 보다 친근하게 시장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6·25전쟁 당시 피난민들의 삶의 애환과 함께 출발한 남항시장은 부산 골목시장이 운데 세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점포수 402개, 시장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상인은 모두 800여명에 이른다.

환대(Hospitality)란?

"누군가를 기쁘게 맞이하여 후하게 대접한다"는 뜻으로 반가운 손님이 오면 비선말로 뛰어나가 맞이하는 우리나라의 '정(情)' 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설렘과 불안함을 먼저 헤아려 '기쁘게 맞이 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한국' 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이미지구성포인트

표정

관광객들은 우리의 표정을 보고 친절과 상냥한 마음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광객이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친근감을 주는 표정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예쁜미소 만들기

- 거울을 보며 다양한 웃는 표정을 지어보고 그중 가장 멋진 표정을 찾아봅니다.
- 항상 의식적으로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도록 하고, 양볼 입 꼬리를 살짝 올려 '공정적 마음'이라는 표현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 눈과 입이 동시에 웃고 있는 지 등을 확인합니다.
- 가장 멋진 표정일 때의 눈가를 떠올리며 매일 연습합니다.

2. 상대방과의 눈 맞춤

-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있으며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표현 방법입니다.

3.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과 상체의 방향 맞추기

- 상대방을 향하고 어깨 높이를 맞추어 눈 맞춤으로써 적극적인 마음 자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소가 대한민국 의 가치를 높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미소국가 태생입니다."*

인사요령

1. 관광객보다 먼저 인사합니다.
 2. 관광객의 눈을 바라보며 인사합니다.
 3. 인사말은 빠르지 않고 분명하게 합니다.
 4. 시간, 장소, 상황에 맞게 인사합니다.
- 안아 있을 때 관광객이 다가오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합니다.

2. 상체를 굽힌다

- 등과 목이 일직선이 되도록 합니다.
- 폭력은 15도 정도는 30도가 적절합니다.

3. 친철히 듣다

- 숙였을 때 1초 정도의 여유를 주고 친철히 듣습니다.

4. 바로 선다

- 바로 서서 미소로 응대합니다.

올바른 인사 연출

1. 인사말을 건넨다
- 인사는 바로 선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 인사말은 먼저 건네고 허리를 숙입니다.

관광안내원의 태도 원칙

1. 미소를 유지하고 밝고 명랑하게 대화하기
2. 고객에 대한 관심을 갖고 배려하기
3. 고객의 요청에는 신속 정확하게 대응하기
4. 업무에 대한 정확한 자식을 보유하기
5.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기

▶ 대화

- 상냥하게 적당한 속도로 대화합니다.
- 고객의 요청사항에 반응합니다.
- 고객의 눈을 마주치며 대화합니다.
- 고객과의 대화 중에는 시계나 휴대폰을 자주 보지 않습니다.

▶ 동작

- 방향을 가리킬 때 이쪽, 저쪽 등의 대명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어깨방향으로 표현 손가락질은 하지 않습니다.

▶ 마음가짐

- 상황과 상대에 맞는 정중하고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올바른 태도 연출

- ▶ 걸음
 - 걸음은 우측보행합니다.
 - 안내하는 고객의 걸음 속도에 맞추어서 걸읍니다.
 - 고객을 앞지를 때는 삼배 표시를 합니다.

상황에 따른 자세

▶ 대기중

- 등과 허리는 곧게, 가슴은 뚫립니다.
- 시선은 정면을 바라봅니다.
- 손은 앞 또는 옆으로 바르게 정리합니다.

▶ 관광객에게 안내할 때

- 방향을 안내할 때 등은 손바닥을 피서 적당한 속도로 가리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내할 때는 이쪽, 저쪽 등의 대명사 보다는 시계방향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내외에서 인솔하는 관광객을 만났을 때

- 시선을 맞추며 밝은 미소로 가볍게 목례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 통화중에 관광객이 와서 기다릴 경우

- 눈인사나 제스처로 양해를 구합니다. "Tip"이외에나기 무용대를 해서는 안됩니다."

▶ 관광객 응대 중에 전화가 왔을 경우

- 관광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습니다.
- 전화를 끊게 되면 기다린 관광객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환영

표준응대행동

- 관광객을 만나면 따뜻한 미소와 적극적인 태도로 환영합니다.
- 관광객들의 짐을 버스에 인전하고 신속하게 실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립니다.
- 관광객 인원과 짐 개수 등을 확인합니다.

표준응대언어

- "어서오세요, OOO여행사의 관광명인내사 OOO입니다. 반갑습니다."
- "맛있는 물건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세요"
- "미상이 없으면 버스를 탈 수 있는 장소인 OOO에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1

이동중

표준응대행동

- 밝은 표정으로 관광객들에게 지기스감을 합니다.
- 전체 일정 및 우리나라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표준응대언어

- "안녕하세요. 이번 한국 여행을 함께할 관광명인내사 OOO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번 한국 여행을 함께할 관광명인내사 OOO입니다."

2

호텔도착

표준응대행동

- 버스에 있는 관광객의 짐을 내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립니다.
- 호텔 로비에서 대기할 수 있는 장소를 안내하고 체크인을 하여 관광객들에게 객실 키를 전달해 드립니다.
- 다음 미팅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안내합니다.
- 모든 관광객이 입실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표준응대언어

- "체크인을 진행하는 동안 OOO에서 잠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호텔의 아침 식사 장소는 OOO이며, O시부터 O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객실에서의 휴식은 편하게 즐기세요."
- "오시는 피곤하심을 한때 쉬시고 다음 미팅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호텔도착

표준응대행동

- 관광객들의 티케팅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도와 드립니다.
- 밝은 표정으로 환송인사를 합니다.
- 모든 관광객이 합승 케이트를 나가는 것을 확인합니다.

표준응대언어

- 티케팅하는 장소는 OOO입니다. OOO에서 잠시 기다려주시면 티케팅을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 "이번 한국 여행이 좋은 추억으로 기억되시길 바랍니다. 한국에 다시 한번 꼭 방문해주세요. 그럼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5

호텔 체크인

표준응대행동

- 체크인 후 최소 30분 전에 호텔에 도착하도록 합니다.
- 관광객들이 오시면 호텔 로비에서 대기할 수 있는 장소를 안내하고 신속하게 체크인아웃을 합니다.
- 인원과 방문 일정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 의 짐을 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립니다.

표준응대언어

- "안녕히 주무셨어요? 불만하신 점은 없으셨는지요? 체크인을 진행하는 동안 OOO에서 잠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맛있는 물건이 없으신지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짐을 실기 실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4



예정된 관광객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 출발시점에서 사전으로 인하여 탑승권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즉시 확인을 하여 정보를 입수합니다.

호텔의 초과 예약으로 관광객이 이용할 호텔 객실이 없을 경우

- 관광객에게 바로 내용을 직설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체크인 후 숙박이 시간이 걸리고 있으니 잠시 기다려주세요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고 즉시 회사와 연락하여 대책을 강구합니다.

1

지도나 리플릿이 없는 경우

- 관광객이 찾는 홍보물이 없는 경우, 양해를 구하고 필요한 내용을 메모 혹은 프린트에 드립니다.
 - 지도가 없는 경우 간단한 악도를 그려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즉각 대응이 어려운 경우, 관광객에게 잠시 기다려 달라는 양해를 구한 후, 정확한 내용을 확인 후 업데이트 드립니다.
- 교통안내
- 도로안내 시 지도를 활용하고 도로로 이동할 경우에는 지도상에 현 위치, 이동로, 목적지 등 이동경로를 표시해 줍니다.
 -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이동경로와 방법을 도식화하여 메모해 드립니다.
 - 문의가 빈번한 주변의 관광지 및 목적지에 대한 교통정보는 시간표를 미리 작성하여 비치해 줍니다.

2

갑자기 관광객을 바꿔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

- 모든 관광객이 허락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한 명이더라도 바꾸는 것을 원하지 않는 관광객이 있을 경우 바꾸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또한 요금 추가가 필요한 경우는 관광객들에게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안내합니다.
- 폭우, 폭설, 태풍 등으로 투어가 불가능한 경우
- 상황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실내관광이 가능한 근처의 관광지를 추천해 드리기나 날씨가 갠악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투어를 재개합니다.
 - 원하시는 분에게는 다시 예약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3

유류할증료 추가 인하...美 왕복 항공권 7만원 싸졌다 올해 최저 수준 기록, 지난달 10% 이어 19% 또 인하, 내달 더 내릴지 주목

항공운임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두 달 연속 인하되면서 여름 성수기 해외여행객들의 비용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유류할증료는 지난달 10% 인하된 데 이어 1일부터 19.2% 추가 인하했다. 올해 최저 수준이다. 최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달 보다 세 단계 하락한 13단계로 책정됐다. 연중 최저다. 지난 4~5월의 18 단계보다는 다섯 단계 떨어졌다. 운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유류할증료는 지난달 하락세로 돌아선 뒤 두 달 연속 내렸다.

이에 따라 이달 미주 지역을 왕복하는 승객이 내야 하는 유류할증료는 31만원대로 지난달보다 7만원 이상 낮아졌다.

대표적 장거리 노선인 미국의 경우 1인 왕복항공권을 기준으로 전월 대비 64달러 내린 266달러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운 들어 유류할증료가 300달러 이하로 내려간 것은 처음이다. 원·달러 환율을 1145원으로 계산하면 30만570원, 전월 대비 7만3000원 이상, 5월 대비 12만원 이상 내렸다.

유럽·아프리카 노선의 유류할증료는 316달러에서 256달러로 60달러(약 6만8700원) 인하됐다. 서남아시아 및 독립국가연합(CIS) 노선은 120달러로 28달러(약 3만2000원), 동남아시아·팜 노선은 124달러로 24달러(약 2만7400원) 내렸다. 운항거리가 짧은 일본과 중국 산둥성 지역은 44달러, 그 밖의 중국 지역과 홍콩 노선은 76달러로 책정됐다.

국제유가가 급격히 오를 때 항공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국제식유시장에서 거래된 항공유 시장가(MOPS)에 따라 매달 조정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이 정한 유류할증료 요금구간은 캘린더 1.5~1.7달러까지 33단계로, 7월 유류할증료는 5월16일부터 6월15일까지 거래된 평균가격(캘린더 2.77달러)에 따라 13단계로 결정됐다.

유류할증료는 지난해까지 전 세계를 4개 노선군(群)으로 분류해 2개 원에 한 번씩 노선군별 1인당 유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할증료를 산출했으나 올해부터는 노선군을 7개로 세분화하고 산출 기간도 1개월도 단축했다. 7개 노선군은 ①일본·중국 산둥 ②중국·동북아 ③동남아 ④서남아·독립국가연합 ⑤중동·대양주 ⑥유럽·아프리카 ⑦미주 등이다. 항공사들은 매달 15일 다음달 할증료를 고지한다. 단 유류할증료는 비행기 출발 날짜가 아니라 항공권을 사는 시점, 즉 발권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조금이라도 여행 경비를 줄이려면 다음달 유류할증료가 정해지는 15일 이후 사는 게 유리하다.

일부 여행사들이 유류할증료를 제외한 새 내놓는 특가상품 가운데 배(항공운임)보다 배품(유류할증료)이 큰 경우도 많다. 싱가포르 석유 시장에서 항공유 가격은 지난 16일 이후에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어 다음달에 유류할증료가 추가 인하될지 주목된다.

김해공항 국제선 상반기 출입국 국내외 여행객 첫 200만 돌파

올해 상반기 김해국제공항을 이용해 출·입국한 국내외 여행객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0만 명을 돌파, 올연말까지 4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김해국제공항을 이용한 출입국자 수가 내·외국인을 모두 합쳐 204만 4천여 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62만여 명이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2% 증가했다.

특히 외국인 출입국자 수는 지난해 47만 5천여 명에서 66만 5천여 명으로 40% 이상 증가했다.

외국인 이용객은 일본인(33만여 명)과 중국인(12만 6천여 명) 순으로 많았다. 일본인은 지난해 같은 기간 25만 2천여 명에서 30.9%가량 증가했다. 중국인은 4만 1천여 명이 늘어나 48.0%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10년 상반기 9천여 명이던 대한국적의 이용객 수는 2011년 상반기 1만 9천여 명, 2012년 상반기 4만 1천여 명으로 매년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이용객이 늘어난 것은 올해 4월부터 시행된 부산-인천 간 국내선 증가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이 노선을 이용한 승객은 지난 4월 1만 5천여 명을 시작으로 6월 2만 2천여 명을 기록해 매달 3천~4천 명씩 늘고 있다.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부산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이 에어부산과 제주항공 등 저비용항공사들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고 부산-인천 간 국내선 노선의 증가로 인천공항과의 환승이 더욱 편리해지면서 출입국자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한 것도 출입국자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부산 갈맷길 안내소 1호점 탄생

영도 절영해안산책로에 문 열어...여행객 길 안내 · 휴식처



부산의 걷기 좋은 길 '갈맷길' 이용객들을 위한 안내소가 처음으로 생겼다. 여행객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휴식처도 제공한다.

부산광역시와 영도구는 갈맷길 제3코스인 영도구 봉래산 기슭 절영해안산책로에 갈맷길 안내소 1호점 문을 열었다.

영도구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 1층에 들어선 이 안내소는 갈맷길 이용객들을 위한 길 안내 · 소통 · 대화 장소 역할을 한다.

부산시와 영도구는 걷영해안산책로 관리동 활용방안을 찾다 1층은 갈맷길 안내소, 2층은 주민을 위한 '편여울 문화마을 거점센터'로 활용하기로 한 것. 갈맷길 안내소에는 공익요원 1명이 상주하며 절영해안산책로를 처음 찾는 여행객들에게 길을 안내한다. 소파, 의자, 전자기 같은 비품도 갖춰 여행객들이 쉬어갈 수도 있다.

앞으로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는 컴퓨터 등을 추가로 갖춰 더 나은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화마을 거점센터는 예술강좌, 교육공간, 공연예술, 조형예술 창작공간을 갖췄다. 건물 바깥에는 아트마켓과 벼룩시장 등이 열릴 예정이다.

스마트폰 통해 갈맷길 700리, 주변관광지 등 모든정보 검색

부산의 걷기 좋은 길 '갈맷길'이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갔다. 스마트폰을 통해 갈맷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다.

부산시는 최근 전국의 도보꾼들을 위한 갈맷길 안내 어플리케이션(앱) '부산갈맷길(생활공감 지도)'을 한층 업그레이드해 내놓았다. 이 앱은 갈맷길에 대한 소개와 9개 코스안내, 거리, 시간, 주변 관광지 등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갈맷길을 걸으며 앱을 켜면 입체지도에 현재 위치가 표시돼 길 찾기는 물론 주변의 다양한 관광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통신사별로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마켓 등에서 '부산갈맷길'을 검색한 후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앱은 무료다.

부산시는 최근 갈맷길 곳곳에 설치한 종합안내판과 이정표에도 QR코드를 부착,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바로 '부산갈맷길' 앱으로 연결되도록 했다.

송중홍 부산시 갈맷길도시환경담당은 "지난해 4월 갈맷길 700리 위성안내도를 제작·보급한 데 이어 수준 높은 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도보꾼들의 현재 위치를 인식해 갈맷길 네비게이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갈맷길의 모든 정보는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앱 '부산갈맷길'이 나왔다. 사진은 부산갈맷길 앱을 통해 길 안내를 받는 모습

금정산 휴식년제, 생태계 복원 효과거뿔다

부산의 진산 금정산이 휴식년제를 통해 생태계 복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1996년부터 금정산 전체를 3개 권역으로 나눠 1개 권역에 5년 동안 사람 출입을 막고 있다. 3개 권역은 △계명봉-고당봉-서문-북구 금곡 일대(제1권역 1천950ha) △범어사-부산대-식물원 입구 등을 포함하는 금정구 일대(제2권역 1천100ha) △은천동-화명·만덕동-금성동 일대(제3권역 1천400ha)다.

부산시는 2006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휴식년제를 시행한 제3권역에 대한 생태계 환경 변화 학술용역조사를 최근 실시했다. 부산발전연구원 등이 조사를 맡아 휴식년제 시작 전과 후의 생태계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것.

조사 결과 3권역의 식물은 142종에서 221종으로, 동물(조류)은 3종에서 53종으로 늘어나는 등 자연생태계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제비꽃, 참새리, 쫄잔나물, 질경이, 주름조개풀 등 식물과 참매, 멧밭재구리매, 조롱이, 말뚝가리, 새호리기 등 법정보호종과 다람쥐, 청설모, 고라니 등이 해당 지역에 서식하는 것도 확인했다.

금정산은 올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권역에 대해 휴식년제를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는 해당 지역에 출입금지 안전 바둑줄과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주 등산로 외에는 출입을 통제한다.

※문의:푸른산림과(888-5791)

호텔리어 전창현

노보텔 엠베서더 부산, '시설부 아르바이트생이 총지배인이 되다'

세계적인 호텔 그룹 아코르(ACCOR) 본사가 실시하는 총지배인 양성 과정을 끝 이수할 예정인 전창현 총지배인은 "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베스트 서비스 구현에 힘쓸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노보텔 엠베서더 부산은 내부 승진을 통해 전창현 객실팀장을 신임 총지배인으로 임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 총지배인은 1991년 당시 하얏트 시절, 기계공학도로서 시설부 아르바이트생으로 호텔에 입문해 20여년간 한 호텔의 스튜어디, 컨시어지, 프런트 데스크 등 핵심 영업 부서에서 다양한 경험과 호텔 운영 노하우를 쌓아 왔다. 외부 영입이 아니라 한 호텔 내



에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내부로부터 검증된 인물이 세계적 호텔 체인인 아코르 계열 호텔의 총지배인이 된 점이 주목을 끌고 있다. 전 총지배인은 부경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마케팅 전공 석사 과정을 수료하였고 특히, 오는 8월 동 대학원에서 관광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할 예정이다. 노사는 학구적인 면과 호텔 내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직원들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인물이 팀장에서 총지배인으로 파격 승진 임명된 것은 직원들에게 커다란 동기부여를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노보텔 부산은 지하 바 '르 부송'의 신규 오픈과 더불어 외부와 호텔을 잇는 구름다리 설치 및 로비의 테라스 카페를 새롭게 준비하고 있으며 객실과 연회장 개보수도 점차적으로 진행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1968년생(45세) 부산출생
1989년 동명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1990년 시설부 아르바이트생으로 호텔 입사 / 3개월 후 스튜어디 부서로 전환
1991년 컨시어지 직원으로 정식 입사
1996년 프런트 데스크 직원으로 근무
2003년 프런트 데스크 지배인 / 경성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2005년 부경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마케팅 전공 석사과정 수료
2006년 프런트 오피스 지배인
2009년 객실부 팀장
2012년 노보텔엠베서더부산 총지배인 / 부경대학교 대학원 관광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예정

“제4회 부산 국제 의료관광 컨벤션 행사 안내”

벡스코에서 9월7일~9일까지 개최

천혜의 자연경관과 매력적인 관광자원이 두루 갖추어진, 그리고 하늘길과 바닷길이 세계로 열려있는 교통의 요충지인 부산에서 의료관광의 국제적인 흐름과 최신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제4회 2012 부산 국제 의료관광 컨벤션'이 오는 9월7일~9일까지 개최된다.

지난해 약 1만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본 행사는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부산 유일의 의료관광 박람회로 올해는 개최장소를 BEXCO로 이전, 타 분야의 박람회(부산국제관광전=행사기간중 9만여명, 부산IT엑스포=행사기간 중 10만여명의 관람객 방문)들과의 연계 개최를 통해 특수 효과를 누린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의료관광객 유치 일본·몽골·베트남까지

부산광역시시는 올해부터 동남아시아와 일본지역 의료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선다. 부산시는 지난 13~21일 베트남, 몽골, 일본 의료관광 에이전시를 초청해 '의료관광 팸투어'를 실시했다. 이번 의료관광 팸투어는 한국관광공사, 부산대학병원 등 10개 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것. 베트남, 몽골 의료관광 에이전시 10여명은 동남권환자력 의뢰원,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등을 방문해 부산 의료관광 인프라를 살피고 해운대 신세계백화점 센티시티점, 누리마루 APEC 하우스 등 관광명소를 둘러봤다.

일본 룩스테이재단 관계자 10여명도 같은코스를 방문했다. 부산시는 몽골·베트남상류층과 일본 고령층을 의료관광객 유치대상으로 정하고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호텔가소식



파라다이스호텔부산

www.paradisehotel.co.kr

예약문의 051.742.2121

비즈니스와 휴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 파라다이스호텔부산

- 세계 리딩 호텔 The Leading Hotels of the world의 회원호텔 부산 유일
- 2006년 4월 259실의 본관 객실 전면 새단장
- 전용 라운지를 갖춘 4개 층의 이그제큐티브 층 운영
- 한층 윗이태리 식당을 포함한 11개의 레스토랑과 라운지
- 바다가 보이는 노천온천을 비롯한 헬스&스파 시설
- 총 540실의 해운대 최대규모본관 259실 / 신관 281실
- 바다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객실 발코니해안측 객실
- 100㎡급 우선인원 350㎡급 원 안락방 구내식당 및 로비 연회장
- 대·중·소 연회장 및 전용 세미나 룸을 갖춘 연회장 시설
- 면세점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관광객을 위한 무대시설



부산롯데호텔

www.busanlottehotel.co.kr

예약문의 051.810.1000

국내 최대규모 초특급 비즈니스 겸 엔터테인먼트 호텔

- 170m 높이의 전국 최고층 호텔이며, 단일 건물 최대 객실 804실 보유
- 8개 국어 동시통역 시스템, 최대 2,500명 수용 대연회장 등 11개 소연회장 및 12개의 최고급 레스토랑 운영
- 사동팔달의 부산교통의 요충지(공항, 무도, 역 10분, 백스코 20분 거리)
- 외국인 전용 카지노
- 별도의 비즈니스 전용층과 초고속 유·무선인터넷 구축
- 중앙 최대 규모의 면세점과 백화점,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 복합 쇼핑타운 조성



노보텔 엠베서더 부산

www.novotelbusan.com

예약문의 051.743.1234

비즈니스 및 리조트 시설을 고루 갖춘 국제적 수준의 노보텔 엠베서더 부산

- 새로운 침대로 더욱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356개 객실
- 24시간 피트니스 센터, 실내수영장
- 24시간 이용 가능한 비즈니스 센터
- 레스토랑-스테이크 & 해물요리 레스토랑, 뷔페, 칵테일스 & 피자
- 서비스-이기보도 서비스, 렌터카 및 리무진 서비스, 세탁 서비스
- 객실 내 초고속 인터넷 전용선
- 천연 온천 사우나
- 그랜드 홀을 및 다양한 연회장 및 연회 서비스센터
- 바-에미스, 디스크텍 & 롱 피아노 라운지 & 북



호텔아쿠아펠리스

www.aquapalace.co.kr

예약문의 051.756.0202

전 객실을 바다를 조망하도록 최화롭게 꾸며지고 고급스러운 객실과 고급 연회장 및 회의 시설이 자랑

- 광안리 해변의 정취와 야경 그리고 광안대교가 어우러진 바다를 아늑하게 조망할 수 있는 객실은 최실선, 완벽한 방문, 방문, 방제 정비 그리고 전문화된 서비스로 잊지 못할 추억과 감동을 선사한다. 객실 78개는 Sea Side에 위치하고 있다.
- 지하 816m에서 뽑아올린 심층 암반해수는 38℃온천수이며 80여종의 미네랄을 함유, 4~5층까지는 100m의 바 디슬라이드와 파도풀, 유스풀, 비데를 수영장등 국내최초 사계절 비치워터 피트호텔이다.
- 환상적인 웨딩홀, 대·중·소 연회실은 각종 세미나 개최에 최적의 환경이 제공되고 있다.
- 지하철 2호선 광안역에서 5분거리



호메르스호텔

www.homershotel.com

예약문의 051.750.8000

야경타운 야경과 여유와 휴식

- 광안리해변 가장 중심에 있는 호메르스호텔에서 광안대교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하며, 아늑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디럭스룸 1박, 조식뷔페 2인, 화이트스텐드 무료입장권 사우나 입장료 할인, 광안해안레포츠 이용료 20%할인 등의 가을패키지 상품이 14만원 예약접수중이다.
- 비치디럭스룸 14만원, 시티 비즈니스룸 10만원
- 세금 봉사료 별도 / 주말, 연휴는 추가요금(금요일 3만원, 토요일 5만원)

외래관광객 1000만명 시대의 부산관광산업



한국관광공사 동남권협력단장 이병선

한국관광의 성장속도가 가히 천기증을 느낄 지경이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한국을 방문한 외래관광객수는 533만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23%가 증가하였다. 현재와 같은 증가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유치목표인 1100만명이 무난히 달성되는 것은 물론 산술적으로는 1200만명까지 가능하다는 수치가 나온다. 유훈의 위기는 해법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와중에 한국관광산업이 이와 같이 쾌속행진을 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개인적으로는 한국방문 외래객수가 300만

명이 채 안되던 1991년 한국관광공사에 입사한 이래 20여년 만에 마침내 외래객수 1000만명 돌파라는 기념비적인 사건을 맞이함에 감개무량할 따름이다.

외래관광객 1천만명 시대의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보자. 이를 이웃나라 경쟁국인 일본과 비교해보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까? 일단 시피 일본은 경제력이나 국제적인 위상에 있어 한국보다 아직은 앞서있는 G8 국가의 일원이다. 관광목적지로서의 인지도에 있어서도 일본은 한국보다 우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서구인들에게 일본은 가히 동경의 대상이자 아시아 최고의 방문 희망국의 자리를 점하고 있다. 단지 방문 선호도 차원만이 아니라 관광 인프라 측면에서도 양국간의 차이는 현저하다. 예컨대 관광호텔 객실수에 서도 한국이 7만실 정도에 불과한 반면, 일본은 100만실에 가까운 관광호텔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래객 유치심각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으며,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이는 한국과 일본의 인구나 소득수준의 차이를 감안할 때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양국간 관광 인프라의 현격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기적에 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할 것이다. 한국관광의 비약적인 성장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있을 수 있겠으나, 우선은 관광업계와 지자체 그리고 관광공사 등 관광 유관기관들이 그만큼 치열하게 외래관광객을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서로를 격려하고 자축하며 외래객 1000만명 시대를 맞이해도 좋지 않을까 싶다.

최근의 성장세에 고무받아 정부는 이제 2020년 2000만명 유치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비행거리 2시간 이내의 거리에 인구 500만의 도시가 18개나 있어 산술적으로 1억명 정도의 잠재적인 인바운드 관광시장이 한국 주변에 있다고 볼 때 이

찌보면 정책적인 목표로는 설정가능한 수치로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인바운드 2000만명 시대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에 대비한 수용태세 확충 등 관광산업의 질적 전환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다시 말해서 양적 확대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한국관광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이는 부산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라 하겠다.

이를 이면에는 한국관광의 화두가 되고 있는 이웃나라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2012년은 한중수교 20주년이 되는 해다. 지난 20년간 양국간의 교류가 얼마나 비약적으로 발전했는지 수치를 통해 살펴보자면, 2011년 기준으로 한중 양국간 교역액은 2200억 달러에 달해, 중국은 한국의 제1위 교역국이 되었고, 중국에게도 한국은 제3위의 교역대상국의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2011년 양국간 관광교류 또한 650여만명에 달해 한국은 이미 중국의 최대 인바운드시장이 되었고, 조만간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한국을 방문하는 1위 국가의 자리에 올라설 전망이다. 양국간

인적교류의 팽창에 걸맞게 현재 한국 7개 도시와 중국 30개 도시를 잇는 항공편이 매주 837편 운항되고 있다.

이와 같이 숫자로 보는 중국 관광시장은 장밋빛인 것이 사실이다. 2011년 6500만명 수준인 중국의 아웃바운드 여행시장이 2020년에는 1억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 또한 한국관광의 미래를 밝게하는 저변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중국 인바운드시장을 낙관만을 하기에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도 많다. 특히 부산의 관광산업이 헤쳐나가야 할 과제는 더더욱 산적해 있는 느낌이다.

지금 중화권 시장에서는 서울, 제주에 편중되어 있는 방한 상품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새로운 관광목적지의 발굴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새로운 목적지의 1순위가 부산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최근 김해공항의 국제선 신규취항이 줄을 잇고 좌석공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서울/제주 이외의 대체 목적지를 찾고자 하는 수요가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외래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부산의 역할이 결정적이며, 시대의 요구 또한 부산이 향후 대중국 매스마켓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실정은 중국관광객 수요를 부산이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에는 호텔건설 붐이 일고 있다. 호텔 신축은 물론 도심에 있는 업무용 빌딩을 호텔로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속출하여 현재 호텔이 건설되고 있거나 예정된 곳을 모두 합하면 21,000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필자는 서울에서 호텔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부산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부산이 흡수해 줘야 할 관광수요를 놓치고 있음에 따라 관광의 서울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이에 따라 서울지역에서 호텔투자의 체산성이 개선됨으로서 호텔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지방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부산이 빚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하는 대목이다. 관광객 지방분산을 통한 지방관광 활성화라는 원론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부산이 중국관광객 유치를 제 몫을 못하고 있는 점은 왜곡된 상품구조의 측면에서도 발견된다. 중국관광객의 부산 방문 패턴은 독자적인 고부가가치형 숙박상품이라기 보다는 서울에서 제주를 건너가면서 잠시 찍고가는 반나절 관광코스의 양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부산 체류시 고작 무료코스+쇼핑 정도로 부산 일정을 짜면서도, 서울-제주 3개 도시 방문상품으로 구성을 해 놓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상품판매 홍보용으로 부산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중국 인바운드의 지상비가 터무니없이 낮아 관광보다는 쇼핑이나 읍선에 치중해 중국관광객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부산관광은 더더욱 부가가치가 구조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의 저가 위주 상품개발로 중국 관광객을 장기적으로 유치할 수 없을은 불문가지의 일이며, 상품가격의 현실화, 고급화가 없이는 중국 인바운드의 발전은 요원하다 할 것이다.

양질의 관광객 유치를 가로막고 있는 부산 관광산업의 문제는 주로 관광 인프라와 관련된 것이 많다. 관광업계에서 더 잘 알고 있듯이 숙박시설 특히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의 부족, 부산지역 인바운드 여행사의 영세성, 외국관광객 전용 쇼핑센터/중국관광객 전용식당/가이드 부족 등 부족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숙박시설의 부족은 부산관광의 질적 양적 성장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시급히 대책을 수립하고 투자유치를 도모해야 할 과제이다. 2000년

대 초반 IT 벤처붐이 일어났을 때 정부차원에서 얼마나 많은 지원을 했었던가? 부산이 폭증하는 중화권의 관광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호텔산업을 공공인프라로 인식하고 호텔 건축과 관련한 보다 과감한 규제완화와 지원을 해야 한다. 관광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호텔을 모텔이나 유흥주점과 같은 유흥업종과 같은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는 호텔을 사치 향락시설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부산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공공 인프라로 호텔산업을 대우해야 할 때이다.

필자는 한국관광공사의 동남권협력단장으로서 향후 한국 관광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은 부산을 중심으로한 동남권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한국관광산업에서 부산이 차지해줘야 할 위치가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관광인프라가 부족한 탓에 날개를 온전히 펼치고 있지는 못하지만, 부산-울산-경남으로 이어지는 상호보완적인 관광자원과 다양성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숨어있다. MICE, 의료관광, 크루즈, 해양관광 등 특보적인 부가가치 관광모델도 있다. 마침 2013년이 "부울경 방문의 해"로 지정되기도 했다. 부울경 방문의 해의 성공요인은 일관성 이벤트에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금년대로 부산관광공사가 발족한다고도 한다. 방문의 해를 계기로 한발 한발 부산관광의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고, 장기체류형 관광모델 개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면 향후 부산은 서울/제주와 함께 진정한 3각축으로서 날개를 펼칠 날이 다가 올 것이다.

2012 부산국제관광전 고교생 관광서비스 경진대회를 주관하면서

“ 부산국제관광전 고교생 관광서비스경진대회의 목적은 관광을 전공하고 있는 고교생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경진대회를 통하여 현장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전공분야를 심화 활성화함으로써 취업의 기회를 확대시키며, 지역사회와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 ”



부산여자대학교 호텔커리어비스타과 학과장
 최 주 호

2007년부터 금년까지 6년 동안 벡스코에서 부산광역시관광협회 주최와 부산여자대학교 주관으로 관광을 전공하는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산국제관광전 고교생 관광서비스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본인은 이 대회를 6년 동안 운영하면서 대회에 참가한 고등학생들의 실무능력향상과 취업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부산국제관광전 고교생 관광서비스경진대회의 목적은 관광을 전공하고 있는 고교생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경진대회를 통하여 현장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전공분야를 심화 활성화함으로써 취업의 기회를 확대시키며, 지역사회와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 경진대회는 관광산업에 필요한 직무와 관련된 카테일조주, 커피바리스타, 카지노딜러 등 3개 종목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5년 동안 이 경진대회를 통하여 관광을 전공하는 전문계고등학생의 실무능력과 취업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성개발과 취업기회 확대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개최된 제14회 2011부산국제관광전 고교생 관광서비스경진대회는 전국 14개 고등학교 184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카테일조주, 커피바리스타, 카지노딜러 등 3개 종목으로 나누어 실시했다.

2011년도 관광서비스경진대회의 특징은 경진대회 종목이 학생들이 최근 선호하는 관광산업의 직종과 관련된 커피바리스타, 카테일조주, 카지노딜러 등으로 나누어 개최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참가학생들의 기 능이 향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관련 전문계고등학교의 참여율과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웰빙이라는 세계식문화 추세에 힘입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커피산업에 근무하는 바리스타가 인기 직업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커피바리스타부문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바리스타(Barista)는 이탈리아어로 바(Bar) 안에서 음료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카테일을 만드는 바텐더(Bartender)와 구분하여 커피를 만드는 커피전문가를 의미한다. 바리스타는 좋은 원두를 선택하고 커피머신을 완벽하게 활용하여 고객의 기호와 취향에 맞는 최고의 커피를 만들어 서비스하는 일을 한다. 이 경진대회를 통하여 바리스타를 체험하고 에스프레소커피추출과 카푸치노커피 만들기 등에 대한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바리스타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카테일조주부문은 가장 많은 학생이 참가하는 인기종목으로 호텔 및 외식산업에 필요한 직종인 바텐더와 관련된 종목이다. 바텐더(Bartender)는 레스토랑과 바에서 카테일을 만들어 서비스하는 카테일전문가로서 적성에 맞다면 도전해 볼만한 매력있고 비전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카지노딜러부문은 카지노산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카지노딜러와 관련된 종목이며, 카지노딜러는 비전있는 미래의 직업으로 꼽히고 있다.

부산은 아름다운 자연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차별화된 경쟁력있는 천혜의 해양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이다. 따라서 부산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외래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관광상품의 개발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이 시점에 9월 7일부터 10일 까지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제15회 2012부산국제관광전이 부산의 관광산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2012부산국제관광전의 특별행사로 개최되는 고교생 관광서비스경진대회가 관광을 전공하는 고등학생들의 실무능력과 취업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최근의 고교생의 취업열풍에 부합하는 명실상부한 전국적인 고교생 관광서비스경진대회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국내 물류운송업계 최고 실적을 자랑하는 “은산해운항공(주)”

지난 1993년 설립된 은산해운항공(주)양재생은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국내 굴지의 복합운송업체로서 국내외 수출입 고객들에게 저렴하고 일관된 물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출입 화물의 해상/항공 운송 물류분야의 비용절감 및 운송시스템 혁신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양재생 대표이사 주요약력

- | | |
|--|---|
| 1993.11.13 은산해운항공(주) 대표이사 | 2008.03.04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주최 제1회 자랑스런 경영인상 |
| 2002.04.01 은산컨테이너터미널(주) 대표이사 | 2008.11.13 제16회 한국물류대상 국토해양부장관상 수상 |
| 2002.06.01 사단법인 부산포럼 이사장 취임 | 2010.05.31 제15회 바다의날 산업포장수상 |
| 2002.08.01 제24회 아시안게임 상화 봉송 물자수송 공로
문화관광부장관상 수상 | 2011.02.25 제9대 부산광역시탁구협회 회장 취임 |
| 2005.02.28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박사학위 취득 | 2011.05.27 제14회 한국로지스틱스협회 물류기업부분 대상 수상 |
| 2005.12.01 한국 물류대상 건설교통부 장관상 수상 | 2011.11.08 제3회 부산고용대상 최우수상 수상 |
| 2006.05.01 (사)한국물류협회 이사 | 2011.12.03 제24회 고려대 AMP 최고경영대상 물류부분 수상 |
| 2007.06.01 은산수출포장(주) 대표이사 | 2011.12.30 2011년 관세청장 표창장 수상 |
| 2007.12.31 무역의 날 포상 산업자원부 장관상 수상 | 2012.06.02 제16회 부산광역시 남해고용평등 모범기업상 수상 |
| | 2012.07.03 2012년 부산중소기업인 대상 수상 |

- 경남 함안군 수동면 남계 마을에서 태어난 은산 해운 항공 양재생 사장은 어릴 적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자수성가한 인물이다. 양재생 사장은 고등학교 졸업 후 혈혈단신으로 부산으로 내려와 고생 끝에 은산 해운 항공을 매출 1800억원 이 넘는 부산의 대표적인 복합운송업체로 성장시켰다. 은산 해운 항공의 이익의 사회 환원은 양재생 사장의 이러한 어린 시절 고생에 밑바탕을 두고 있다.
- 은산 해운 항공은 지난 2008년 부산전여자상업고등학교와 교육 공동체 구축의 일환으로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고, 산학협력을 통하여 지역 사회 인재양성 및 부산 항토기업의 지역 사회 공헌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지원 안해 각서를 체결, 지역 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있으며, 2010년 1월에는 부산시 교육청에서 수여하는 UP 스포츠 교육메세나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UP 스포츠 교육메세나탑은 기업이 교육메세나 부분에 공헌한데 대해 수여하는 전국 최초의 상이다.
- 은산 해운 항공(주)는 지난 2009년 6월 부산자동차고등학교,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를 비롯한 3개 학교에 각각 1억원 상당의 교육 활동 기지재를 기탁함은 물론 해운대학교와 양은고등학교에는 매년 각각 3천만원 상당의 도서 구입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밖에도 활발한 지역 경제 및 문화 활성화 추진 기반의 일환으로 각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발전기금 (2011년 기준)
 - 고려대학교경영대학: 3천만원 / 해운대학교: 1천만원
 - 수동중학교: 5백만원 / 부산경상대학, 동아대학교: 각 2백만원
 - 한국국제대학교: 1백만원
-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말 기준 전국 4천여개 복합운송업체 가운데 해상수입화물을 가장 많이 취급한 회사(BL 취급 실적 1위로 기록됨

(주요 연혁)

- 2002년 양산에 CY, OFS인 은산물류창고(주)를 오픈.
- 2007년 6월 인근에 수출포장을 전문으로 하는 은산수출포장(주)를 설립.
- 2008년 8월 부산신항 주변에 부지 7,500평에 일반창고(2,200평), 위험물창고(330평)를 원공, 운영에 들어감.
- 2009년 12월 은산해운항공과 은산컨테이너터미널이 은산로지스라는 공동브랜드로 중합물류인증기업으로 선정됨.
- 2010년 05월 바다의날 국토해양부 산업포장 수상
- 2010년 12월 은산해운항공(주), 은산컨테이너터미널(주), 은산수출포장(주) 중합물류기업 인증 획득
- 2011년 05월 한국로지스틱스학회 물류기업부분 대상 수상
- 2011년 11월 부산신항만 화전산단 내에 부지 10,344평에 은산컨테이너터미널(주) 화전산단지점을 개소
- 2011년 11월 은산컨테이너터미널(주) 신항만 화전산단지점 개소
- 2011년 11월 제3회 부산고용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 12월 부산광역시 주최 선도기업에 선정
- 2011년 12월 관세청장 표창장 수상
- 2012년 02월 부산항 개항 136주년 기념 부산항발전협의회 공모상 수상
- 2012년 05월 제16회 부산광역시 남해고용평등 모범기업상 수상
- 2012년 05월 부산항노조 공로패 수상
- 2012년 07월 2012년 부산중소기업인대상 수상

World Best Global Leader Eunsan


이 세상보다 더 큰 은산의 꿈



대표이사 양재생




글로벌 중합물류 프론티어, 은산해운항공(주) • SHIPPING 해상화물 • AIRCARGO 항공화물 • WAREHOUSE 창고보관업 • HOUSEHOLD GOODS 가사화물 • INLAND TRANSPORTATION 내륙운송 • EXPORT PACKING SERVICE 수출 포장업 • LCL CONSOLIDATION SERVICE LCL 화물 • PROJECT CARGO, HEAVY/BULK CARGO 프로젝트화물, 특수화물


 2012 August 140
 觀光通山 Busan Tourism News

銀山 航空 株式會社
 銀山 컨테이너터미널 株式會社
 銀山 物 流 天 津 有 限 公 司

■시 務 : 서울시 중구 소공동 21번지 한일빌딩 8층
 ■부 선 : 부산시 중구 중앙동 471 87-2번지 해당빌딩 8층
 ■양 山 CY/OFS : 경남 창원시 아곡동 870-3번지
 ■신 항 WCY/OFS :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707-2번지
 ■신 항 화전CY/OFS : 부산시 강서구 화전동 558번지
 ■포 항 : 경남 양산시 아곡동 425-1번지
 ■통 국 (한인) : 53-1, Weid Road, Heu District, Tianjin, P.R.Chin

Tel. 021772-9966 Fax. 021773-9969
 Tel. 051441-9966 Fax. 051441-9969
 Tel. 053383-9906 Fax. 053381-9909
 Tel. 051557-9966 Fax. 051557-9969
 Tel. 051465-9966 Fax. 051465-9969
 Tel. 053382-9966 Fax. 053385-9969
 Tel. 86-22-2282-6888 Fax. 86-22-2823-1188





여행사 신뢰의 첫걸음 여행공제회로부터 시작합니다!

- **공제지급보증** 항공, 철도, 여행도매업자, 선박 등 여행업관련 주계약에서 정한 대금 지급채무를 이행보증합니다.
- **공제영업보증** 영업보증에 가입하지 않고 여행업을 운영하면 법령에 의거 등록이 취소됩니다.
- **공제계약보증** 여행계약에서 정한 계약사항을 이행보증합니다.
- **공제회 협력업체**

여행도매업자 : 하나투어, 모두투어네트웍, 롯데관광개발, 롯데제이티비, 세종투어물여행, 자유투어, 레드캡투어, 오케이캐슈백스(주)투어비스, 노랑풍선, 투어이친, 맥여행사, 한진관광, 포커스투어, 하나유스, 걸리버트래블어소시에이트, 신한투어 등

항 공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철 도 : 한국철도공사

선 박 : 씨월드고속훼리, 한일고속, 대이고속해운, 위동해운, 큐슈여객철도, 한국고속해운, 크루즈올리데이코리아 등

금강산·개성 : 현대아산

공제회는 여행사 전담 보증기관으로 저렴한 수수료로 보증서를 발급해드립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
KTA 대표전화) 02-757-7491 팩스) 02-757-7490

서울 02)757-7482	부산 05)1463-3111	대구 05)3746-6407	인천 03)2432-4590	광주 06)2224-4486
대전 04)2226-8413	울산 05)2275-2412	경기 03)1255-8424	강원 03)3242-0089	경남 05)5212-1345-6
충북 04)31231-5563	충남 04)2254-5465	전북 06)31287-6292	전남 06)1285-0833	경북 05)4745-0750
제주 06)41742-8861	KATA 02)752-8632			

DYNAMIC BUSAN

BITF 2012

Since 1995
제 15 회

The 15th Busan International Travel Fair

부산국제관광박람회

2012. 9.7(금) - 9.10(일) BEXCO 3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관광협회

주식회사 코트피

KOTA CO., LTD.

수시모집 1차: 2012. 9. 3(화)~9.14(금)

내가 가고 싶은 길

2012

교육기부기관 선정

2년연속 교육역량우수대학 선정

(지원금액 42억3천2백만원 전국14위)

대학생 취업역량강화 지원사업 A등급 선정



2013학년도 개설학과

유아교육과, 아동복지보육과, 유아영어지도과, 아동미술보육과, 아동음악과, 아동스포츠과, 국제관광통역과, 항공운항과, 호텔경영과, 호텔카지노과, 웨딩이벤트과, 호텔외식조리과, 호텔커피바리스타과, 호텔제과제빵과, 간호과(3년제), 안경광학과(3년제), 치위생과(3년제), 보건행정과, 병원전산관리과, 보건의료문헌정보과, 미용과, 이가자헤어비즈과,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상담과, 사회복지재활과, 콜마케팅매니저과, 보석감정 & 디자인과, 음악과



부산여자대학교
BUSAN WOMEN'S COLLEGE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남로 506(임정동)
Tel. (051)852-0081~5, Fax. (051)867-4705
입시안내 Tel. (051)850-3008~10, Fax. (051)850-3013
사회교육원 <http://sahoi.bwc.ac.kr>, Tel. (051)850-3107-8